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강해

AN EXPOSITION ON THE EPISTLE OF
JAMES, AND THE APOSTLE PETER'S
FIRST AND SECOND EPISTLES

[2판-수정증]

김효성

Hyosung Kim

Th.M., Ph.D.

옛신앙

oldfaith

2021

머리말

주 예수 그리스도(마 5:18; 요 10:35)와 사도 바울(갈 3:6; 딤후 3:16)의 증거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진술된 대로(1:8), 우리는 성경의 원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류가 없이 기록되었고 그 본문이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적 견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성경의 헬라어 비잔틴 다수 사본들의 본문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 원본의 본문에 가장 가까운 본문으로 여전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본다.

성경은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들에도 유일한 규범이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풍조와 운동이 많은 영적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기를 원하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원한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암 8:11).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오고 있다. 많은 설교와 성경강해가 있지만, 순수한 기독교 신앙 지식과 입장은 더 흐려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요구되는 성경 해석과 강해는 복잡하고 화려한 말잔치보다 성경 본문의 바른 뜻을 간단 명료하게 해석하고 잘 적용하는 것일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성경책 한 권으로 충분하다. 성경 주석이나 강해는 성경 본문의 바른 이해를 위한 작은 참고서에 불과하다. 성도는 각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 주석과 강해는 오직 참고로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내용 목차

야고보서

서론	6
1장: 시험을 참음	8
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20
3장: 말에 온전한 자	28
4장: 탐욕, 비방, 자랑을 버릴 것	33
5장: 인내와 기도	43

베드로전서

서론	50
1장: 믿음의 시련	51
2장: 성도의 특권과 의무	64
3장: 선행에 힘쓰라	77
4장: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94
5장: 장로들에게 주는 교훈	104

베드로후서

서론	114
1장: 신앙의 성숙	115
2장: 거짓 교사들	127
3장: 주의 날	136

야고보서

서론

전통적으로, 공동서신은 7권의 책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이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것 같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저자는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1절)이라고만 표현한다. (2) 만일 본서가 사도의 저작이었다면, 그것의 정경성은 초대교회에서 오랫동안 의문시되지 않았을 것이다. (3)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일찍이 주후 44년경 순교했다(행 12:2). (4)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적 인물이었다. 그의 발언은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에 주요 역할을 했고(행 15:13-21), 사도 바울은 ‘주의 형제 야고보’를 사도들과 같은 권위를 가진 인물로 언급했고(갈 1:19)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케바와 요한’이라고 표현하였다(갈 2:9)

야고보서는 2세기에 번역되었다고 보이는 옛 수리아어역에 포함되어 있다. 고대 교부들인 오리겐, 예루살렘의 시릴, 나지안스의 그레고리, 아다나시우스, 제롬, 어거스틴 등은 본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였다. 본 서신이 로마와 칼타고 등 서방에서는 오랫동안 의문시되었으나 예루살렘과 수리아 등 동방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인정되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죽음에 대하여,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가 대제사장 아나누스의 명령으로 돌에 맞아 죽었다고 말하지만,¹⁾ 기독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는 그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한 후 몽둥이로 맞아 죽었다고 말한다.²⁾ 어느 증거가 맞든지 간에 그는 다른 사도들과 같이 순교하였다.

1) *Antiquities of the Jews*, 20. 9.

2) 교회사, 2. 23.

본 서신의 **저작 연대**는 주후 45년에서 48년 사이일 것이다. 본서는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주후 63년 이전), 아마 예루살렘 회의(주후 49년경) 이전에 쓰였을 것이다. 본 서신의 **수신자**는 동방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야고보서의 **특징적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이행득의(以行得義), 즉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밝히 증거하는 이신칭의(以信稱義), 즉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 진리와 겉으로는 충돌하는 것같이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救贖)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야고보의 표현은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복음 진리는 분명하고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뜻도 분명하다. 사도 바울도 참된 믿음은 의와 선을 행함으로 나타남을 분명히 말하였다(갈 5:6; 살전 1:3; 롬 6장).

야고보서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장, 시험을 참음
- 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 3장, 말에 온전한 자
- 4장, 탐욕, 비방, 자랑을 버릴 것
- 5장, 인내와 기도, 병자를 위한 기도

1장: 시험을 참음

1-11절, 시험, 지혜, 성도의 자랑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본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생각된다. 저자가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단지 혈육의 형으로 생각지 않고 주님으로 고백한 것이다. 즉 그는 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 순종을 고백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형이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가 순종해야 할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요한복음 7:5,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사도행전 1:14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여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에 힘썼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19에 ‘주의 형제 야고보’를 언급하였고 또 갈라디아서 2:9에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표현하였다.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 즉 수리아와 소아시아 등 여러 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하였다. 유대인들은 유대 왕국의 멸망 후 온 세계에 흠어져 사는 자들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 믿는 유대인 성도들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대표하였다.

[2-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본서에 19번 사용된 ‘형제’라는 말은 초대교회에서 성도 상호간에

사용된 친근한 명칭이다.³⁾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형제들이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은 성도에게 닥쳐오는 시험이 다양함을 보인다. 어떤 때는 육체적 질병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실직이나 부도, 파산 등의 물질적 어려움이 있다. 어떤 때는 가족들의 질병과 사고와 죽음이 있고, 어떤 때는 친구의 비방과 배신이 있다. 어떤 때는 가정의 파탄이나 국가의 경제 공황이나 전쟁이 있다.

성도는 이런 다양한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그 이유는, 모든 환경이 섭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로마서 5:3-4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인격의 단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앞이로다”라고 말했다. 신앙 인격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 단련되고 성숙하게 된다.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써야 할 성화의 목표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단련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야곱은 20년간 하란에서 외삼촌 밑에서 고된 수고를 하였고, 요셉은 약 13년 가랑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고, 다윗은 10여년간 피신 생활을 하였다. 그들은 오랜 고난의 단련을 통해 신앙 인격의 성숙을 가졌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받아야 한다.

[5-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3) 이 말은 신약성경에 346회 사용되었고 사도행전에서는 57회 사용되어, ‘제자들’이라는 말(30회)보다도 더 빈번히 사용되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잘 대처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잘 적용하는 능력이다. 지혜는 참으로 귀하다. 잠언은 지혜의 책인데, 지혜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다. 잠언 3:13-18,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옴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만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얻을 수 있다. 주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 7:7-8).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는 그것을 후히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지혜를 구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믿어야 할 이유는 주께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앞에서 인용한 마태복음 7:7뿐 아니라, 마가복음 11:24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우리가 그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

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5:14,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9-11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회적 신분이 낮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을 자랑할 수 있다. 흔히 성도에게 닥치는 큰 시험거리는 물질 문제이지만, 성도들은 세상 것들이 헛되다는 것과 주 예수님 안에서 얻은 구원과 복이 지극히 크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고 자랑한다. 그러나 한편, 사회적 신분이 있거나 물질적 유여함이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 부요의 헛됨을 인정하고 낮은 형제들과 교제하게 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세상의 것들이 풀같이 시들고 아름다운 꽃같이 없어지는 것임을 깨달았고(사 40:6-8) 거기에 더 이상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 성도의 가치는 오직 천국과 부활에 있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하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자(롬 6:22).

둘째로, 우리는 시험들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자. 시험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여 얻자. 믿고 구하는 자마다 지혜를 얻을 것이다.

넷째로, 우리들 가운데 낮은 형제들은 주 안에서 성도의 높은 신분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들은 세상것들이 헛됨을 깨닫고 자신들의 낮아짐을 자랑하자. 성도의 가치와 소망은 부활과 천국과 영생에 있다.

12-18절, 시험의 원인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 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이라는 원어(페이라스모스 πειρασμός)(2, 12-14절)는 ‘시련’이라는 원어(도키미온 δοκιμιον)(3절)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다. 사람이 환난의 시험을 잘 참으면 온전한 인격자가 되므로 복되다(3-4절).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이라는 원어(도키모스 δοκιμος)도 ‘시험을 받은’이라는 뜻이다. 성도들의 시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시험이다. 그것을 잘 통과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음이 증명될 것이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을 가리킨다. 면류관은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상을 의미한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했다(롬 8:35, 37). 사도 요한도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했다(요일 5:4).

영생은 행위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결과라는 뜻에서 상이라고 표현되었다고 본다. 영생은 성도의 정상적 신앙생활의 결과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22에서,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했다고, 갈라디아서 6:8에서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영생의 영광을 얻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참고 이겨야 한다.

[13-16절] [그러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시험의 원인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는 진리에서 보면 모든 일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 진리는 하나님께 악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다고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본문은 사람이 받는 시험의 원인이 그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한다. 각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될 때 시험에 떨어진다. 사람은 돈과 정욕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한다. 또 돈 사랑이나 명예심이나 생의 애착 때문에 물질적 파산이나 남의 비난이나 몸의 질병으로 인해 낙망한다. 우리에게 욕심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시험거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생의 최고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지혜롭고 공의롭고 선한 처분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의 필요와 우리의 건강을 주실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시험은 오직 자신의 욕심에서 오는 것이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장성한다’는 원어(아포텔레오 ἀποτελέω)는 ‘끝까지 마친다’는 뜻이다. 즉 죄가 죄로 끝나치고 사람이 그 죄를 끝까지 회개치 않는다면 죽음에 이른다는 뜻일 것이

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지옥 형벌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 사람의 시험이 욕심에서 나는 것이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욕심을 낼 때는 그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그 결과는 죄이며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17절] 각각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천지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천지만물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는 데 쓰이는 지혜와 능력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다. 사람이 발전시킨 음악과 미술, 문학과 과학 등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이다. 이것들은 다 위로부터 즉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왔다. 성경에서 ‘어두움’은 무지와 죄와 슬픔과 불행을 가리키고, ‘빛’은 지식과 의와 기쁨과 행복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아버지이시다. 그에게는 참된 지식과 의와 기쁨과 행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점에 있어서 그는 변함이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신 자들이다. ‘첫 열매’란 중생(重生)의 구원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된 것이었다. 요한복음 15: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에베소서 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은 영광의 천국과 몸의 부활에 비해 볼 때 첫 열매에 해당한다. 로마서 8:23,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

야고보서 1장: 시험을 참음

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救贖)을 기다리느니라.” 영광스럽고 완전한 추수는 아직 미래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다. 앞으로 올 새 세계를 생각할 때에 성도들의 구원은 첫 열매와 같다. 장차 만물이 새로워지고 회복될 것이다. 사도행전 3:21, “만유를 회복 하실 때.” 로마서 8:20-21,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런 천국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중생시키셨고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에 지지 말고 잘 참고 이겨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지만, 중생한 자는 온갖 시험에 지지 말고 잘 이겨야 한다. 우리는 성경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갖 시험을 잘 이겨야 한다.

둘째로, 사람의 시험의 원인은 자신 속에 있는 욕심이므로, 우리는 돈과 쾌락과 명예 등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을 버림으로 어떤 시험에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돈과 쾌락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다 버려야 한다. 그래야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세상은 창조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그에게서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첫 열매로 구원하신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천국만 바라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의 모든 계명과 말씀을 지켜 거룩과 의와 선과 진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의 참된 소망은 주의 재림과 영광의 천국뿐이다.

19-27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19-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그러므로)(전통사본)⁴⁾(KJV)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한다. 잠언 10:19,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7:27,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존한 자는 명철하니라.” 우리는 말을 할 때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만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 우리는 성내기도 더디해야 한다. 사람이 옳지 않은 일을 보고 화를 낼 수 있겠지만, 화를 내더라도 많이 생각한 후에 내어야 한다.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화를 낼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화를 낼 때 말로 실수하거나 남을 미워하는 죄를 짓기 쉽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이다. 잠언 14:29,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9:11,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6: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2:16,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道)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회개이다. 구원받는 사람은 무엇보다 죄악된 생활을 회개해야 한다. 또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 ‘도’(道)는 ‘말씀’이라는

4) Byz syr^(b) 등이 그러함.

뜻이며 그것은 복음을 가리킨다. 그것은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곧 ‘구원의 말씀’(행 13:26)이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율법이 돌에 새겨졌던 것과 달리, 우리의 ‘마음에 심긴 말씀’이다(고후 3:3).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 온유함은 순진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가짐을 말한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항하지만, 온유한 마음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

[22-24절] [그러나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기본적인지만, 야고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강조한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실상 믿지 않는 자이며 자신을 속이는 자이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증거한다. 여기에서 행함은 우선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부터 가리킬 것이다.

성경말씀은 거울과 같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은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로 자신의 더러워진 얼굴을 보고 그것을 씻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들은 후에 고칠 것은 고치고, 행할 것은 행하라고 주신 것이다.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파라메이나스 παραμείνας)[안에 거하는 자](KJV, NASB, NIV)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법]’은 복음을 묘사한 말이다.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한 법이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나 성막 제도 혹은 성전 제도는 신약시대에 다 폐지되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복음은 완전한 법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그가 이루신 의(義)를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

복음은 또한 '자유하게 하는 법'이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밝히 증거된 진리이다. 바울은 그 서신들에서 복음 안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음을 증거하였다(롬 7:6; 갈 5:1, 13). 그 자유는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로부터의 자유일 뿐 아니라, 율법 제도와 율법의 멍에와 속박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복음 진리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이다. 즉 참 신앙은 순종의 행위를 동반한다. 로마서에서 믿음을 많이 강조한 바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했다(롬 6:1-2, 15).

또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성도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히 12장), 그가 의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안과 형통을 누릴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계시된 복의 약속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약속된 복이다. 그것은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재물의 복, 평안의 복, 존귀의 복, 승리의 복 등을 포함한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는 경건과 행위의 관계를 강조한다. 사람이 스스로 경건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통제하지 않아서 조심스런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 덕스러운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그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가 참으로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말부터 고쳐야 한다. 그는 서로 사랑함

에 어긋나지 않는 선한 말과 덕스러운 말과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는 참 경건이 어떤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에 대해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돌아보는 구제와 봉사의 일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쌍한 교우나 이웃을 돌아볼 줄 모른다면, 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불경건하고 죄악되고 음란한 유행과 풍조를 배격하지 못하고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경건과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참된 경건과 참된 믿음이 아니다. 참된 경건은 선행과 거룩함으로 나타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성도에게 기본적인이다. 21절, “너희는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道)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고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는 그 복음 안에 거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주신 새 계명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께서 주신 계명을 듣고 행치 않는 자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나 성경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셋째로,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듣기는 속히 하는 것이 좋지만, 말하기는 더디해야 하고 성내는 것은 더욱 더디해야 한다. 말은 실수하기 쉽고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넷째로,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선행에 힘쓰고, 자신을 지켜 이 세상의 죄악된 풍조와 유행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음란하다. 우리는 그런 악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

2장: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

1-13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서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지 말라].

‘영광의 주’라는 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증거한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2:8에서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증거하였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복음 신앙이며 구원 신앙이다. 이런 표현은 야고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인다.

야고보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며 차별하며 편애하면서 영광의 주를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한다. 존귀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낮고 비천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라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광의 주님께서 친히 낮고 비천한 인생의 모습을 취하셨는데,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낮고 비천한 자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무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2-4절] [이는] 만일 너희 회당(쉬나고게 συναγωγή)[assembly,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아니나 함이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교훈하는 이유는 당시에 교회 안에 이런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배당에서 교인들은 금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부자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친절히 대하

지만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고 불친절하게 대했다. 그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였다. 그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였다.

교인을 경제적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사람이 소유한 돈의 많고 적음이 그의 인격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셨다.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부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이었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인격적 덕성 즉 그의 경건과 믿음, 그리고 그의 의와 선과 진실의 도덕성을 가지고 판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보이는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 세상 사람들은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바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단지 그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무지하고 악한 일이다.

[5-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시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괘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훼방하지 아니하느냐?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증거한다. 그 이유는 네 가지로 표현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보통,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 주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고 그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다(마 19:23).

둘째는 부자들이 성도들을 압제하고 훼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비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기도 했다. 그

러나 가난한 자들은 보통, 성도들에게 그런 악을 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부자들을 우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천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8-11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됨 이니 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됨이니라].

셋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노모스 바실리코스 νόμος βασιλικός)[왕의 법]을 어기는 죄가 되기 때문이다. 율법들 중 첫째는 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지만, 인간 관계의 법들 중 첫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마 22:35-39). 이것은 그 외의 모든 법의 요약과도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우리는 이 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이며 죄인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어느 것 하나만 범해도 우리는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모든 율법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의 어느 하나를 범해도 그는 하나님의 법을 범한 죄인으로 정죄되는 것이다.

[12-13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있을 것임이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넷째는 우리가 자유의 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자유’의 법’은 복음을 가리킨다(약 1:25). 복음은 우리에게 죄와 지옥 형벌과 율법의 속박과 위협과 공포로부터 건져내어 자유를 주는 새로운 법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代贖) 사역에 근거한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된 것이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

대속의 복음에 근거하여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와 공휼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자를 공휼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천대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휼을 입을 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물리치지 않으시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공휼을 받은 자로서 장차 그 공휼에 의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 우리도 남을 공휼을 여겨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공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휼로 우리는 지옥 형벌을 모면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공휼과 자비를 가지고 대해야 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기본이다. 그것은 구원 신앙이다.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진심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외적 조건들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우리는 사람을 그의 외적 조건들로 판단하여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고 도와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켜야 한다. 인간 관계의 모든 법들은 이 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법을 따라 살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것이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로, 우리는 자유의 법을 믿어 구원받은 자답게 남을 공휼히 여겨야 한다. 복음은 자유의 법이며 그 내용은 하나님의 공휼과 은혜이다. 우리는 복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도 공휼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

14-26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

[14-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에르가 εργα)[행위들]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행함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본문에서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임을 교훈한다. 그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믿음은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상하며 ‘행위들’은 선한 행위들을 가리킨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구원 신앙은 선한 행위로 증거되는 믿음 즉,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6에 말한 대로,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이다.

야고보는 자신이 강조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 예를 든다. 그것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는 자를 돕는 행위이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웃의 몸의 필요한 것도 주어야 함을 보인다. 우리는 이웃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내세 천국만 전하지 말고 그에게 밥과 옷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선행과 구체의 행위로 표현되어야 한다. 선행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선한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선한 행위들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18-20절] 흑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너의 행위들로)(전통사본)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죽은 것)(전통본문)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음을 증거한다. 믿는 각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선한 행위로 증거해야 한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선한 행위로 그 믿음을 나타내어야 한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지만 그런 정도의 지식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귀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죽은 것이다.

[21-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그] 믿음이 그의 행함[그의 행위들]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그 행위들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는 참 믿음이 행함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두 가지 예를 들어 증거한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 사건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했었다. 야고보는,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에 대해 강조하였던 것(롬 3:22, 28, 30)과 달리,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였다. 또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들과 함께 일하고 그 행위들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말한다.

[23-24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성경말씀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이 그의 순종

5) Byz **κ** A vg^{cl} syr^p cop^{bo} 등이 그러함.

의 행위로 인해 확고해졌으며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림을 받았다고 말한다.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고 다시 말한다. 그것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또 하나의 예로 기생 라합을 든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을 치기 위해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피하게 하였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임을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믿음은 위험을 무릅쓴 그의 선한 행위로 나타났다. 야고보는 21절과 24절에 이어 세 번째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

[26절] [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죽은 몸이니라).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유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말도 17절과 20절(전통사본)에 이어 세 번째로 사용한 표현이다.

야고보가 2장에서 세 번이나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표현한 것은,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교훈한 것과 모순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초대교회는 서로 다르지 않은 한 복음을 받았다(갈 2:9). 신약성경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도들과 사도적 인물들이 쓴 책이며 그들의 교훈은 서로 모순될 수 없고 모순되지 않는다고 본다.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대조하면서, 사람이 율법을

야고보서 2장: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

행함으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야고보는 선한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과 선한 행위가 있는 산 믿음을 대조하면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가 아니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야고보의 표현은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 진리인 바울의 교훈과 충돌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가 말하는 뜻을 이해한다. 또 바울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했을 때 결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말한 것이다. 로마서 6: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본문의 요점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이다. 이 내용은 17절과 20절과 26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다. 이 강조된 내용이 주는 실제적 교훈은 우리의 믿음은 선한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죽은 믿음이 되지 말고 선한 행위로 증거되는 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행위, 라합과 같은 믿음의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경건한 삶뿐 아니라,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는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경의 요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고, 둘째로, 선과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구제하기를 힘쓰는지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3장: 말에 온전한 자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행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성경을 가르치고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매우 귀한 일이지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크고 그 벌이 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나 가르치는 일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 직분을 사모하는 자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과 건전하고 선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2절] [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많은이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다 실수가 많고 특히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사람의 인격의 온전함은 말의 온전함에서 증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말, 덕스러운 말, 참되고 진실한 말만 하고 남에 대한 오해의 말이나 잘못된 비난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당히 성숙하고 온전한 인격일 것이다.

혀는 사람의 몸을 통제하며 말은 그의 인격을 나타낸다. 선한 자는 선한 말을 하며 악한 자는 악한 말을 한다. 예수께서는 그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마 12:34-37).

[3-5절] 우리가 말(馬)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

거(馭車)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는 혀의 중요성을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에 비교한다. 말은 힘이 센 동물이지만, 사람은 말의 입에 재갈 즉 쇠토막을 물려 자기 뜻대로 그것을 이끌고 사용한다. 큰 배도 배 밑에 달려 있는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된다. 또 야고보는 혀를 불에 비교한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작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하며 큰 일을 행한다. 잠언은 의인의 혀가 천은(天銀)과 같고(잠 10:20) 지혜로운 자의 혀가 양약(良藥) 같다고 말하며(잠 12:18), 또 확실한 증인의 말이 힘이 있다고 말한다(잠 21:28).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不義)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과 같다. 그것은 산불이나 건물 화재처럼 나쁜 결과를 주는 불과 같다. 혀는 또 불의(不義)의 세계이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의 과정을 무너뜨린다. 사람은 자기가 쌓은 선을 잘못된 말 한마디로 다 무너뜨릴 수 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는 말은 “그것[혀]은 지옥불에 사투어지리로다”라고 번역되어야 한다고 본다(KJV, NASB, NIV).

[7-8절] [이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기는 것=파충류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다루기 힘든, 길들이기 어려운]⁶⁾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것임이니라].

본문은 야고보가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말한 이유를 말한다.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말한 것은 혀가 길들여지지 않고 남을 죽이는 독이

6) Byz C 등이 그러함.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과 기는 것들과 해물들은 다 길들이면 길이 든다. 우리는 개나 소나 말이나, 또는 비둘기나 뱀이나 물개 등이 어떻게 길들여지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고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것은 ‘다루기 힘든’ 악이다. 혀는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사람의 혀는 심히 악하다.

[9-12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하나님}7)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어떤 샘도 짠물과 단물을 함께 내지 못하느니라(전통사본).}

혀의 악함은 성도들에게서도 종종 보인다. 그것은 그들의 이중적인 언어생활에서 나타난다. 성도들은 자신의 혀로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동일한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것이다. 한 샘물이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없듯이,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다. 이것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훈하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하였다(엡 4:29, 31).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참 지혜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행위로 표현되되 선함과 온유함으로 표현된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요 성령의 열매인

7) Byz vg^{cl} ww cop^{sa} bo^{pt} 등이 그러함.

지혜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갈 5:22-23). 전도서는,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고 말하였다(전 8:1). 참된 지혜는 선함과 온유함으로 표현되며 그 얼굴에 기쁨과 평안으로 나타난다.

[14-16절]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거슬러] 거짓하지[속이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혼란, 무질서]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마음에 온유함 대신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는 참된 지혜가 없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지혜자인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말아야 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세상적’이라는 표현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뜻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16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욕적’이라는 원어(프쉬키코스 ψυχικός)는 ‘육욕적’이라는 말로서 육신의 죄악된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따르는 것이라는 뜻이며 ‘마귀적’이라는 말은 ‘귀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뜻이다. 마음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무질서와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17-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온유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에 의해 화평 중에 심어진 것이니라].

이와 대조적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다. 그것은 죄악된 일을 버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둘째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들과 비슷하다(갈 5:19-23). 셋째로,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것은 공정하고 진실하다. 신적 지혜는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함이다. 잠언은 지혜를 가르치는 책인데, 거기에서 말하는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잠언의 모든 말씀은 결국 야고보서 본문이 가르치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동일하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고 말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귀한 것이지만, 잘못 가르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의 혀는 가장 길들이지 않는 것이지만, 말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한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작은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의 과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 성화는 말의 온전함에서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바르고 선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특히 남을 비난하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를 버려야 한다.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를 가진 자들 가운데는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무질서와 온갖 악이 있다. 말에 있어서 악하고 거짓되고 부덕한 것은 다 이런 지혜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지혜자인지 모르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괴시키는 자이다.

셋째로, 우리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함이 가득하며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것은 잠언이 가르친 지혜와 같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또 그것은 성령의 열매들과도 같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고 선하고 진실해야 한다.

4장: 탐욕, 비방, 자랑을 버릴 것

1-10절, 겸손히 하나님께 순복하라

[1-2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가지려 하여도](KJV, NIV)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사람들 간의 싸움은 대체로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도 대체로 욕심 때문이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정욕’이라는 원어(ἡδονή)는 ‘쾌락, 욕망’을 의미한다. 욕심이 분쟁의 원인이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는 말은 중생한 신자의 본성 속에도 거룩한 마음과 성향을 대항하여 싸우는 육신적 욕망이 있음을 보인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성령의 원하시는 것과 싸우는 육체의 욕구라고 말했다(갈 5:16-17). 이 둘이 서로 싸운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11에서 “영혼을 거스려[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했다. 여기에 ‘영혼’은 중생한 영혼의 변화된 성향을 가리킨다. 그 성향은 경건과 의와 선과 진실만을 지향하는 성질이다. 중생한 성도들의 이런 변화된 새 성향과 육신의 죄악된 본성의 욕심이 서로 싸운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남아 있는 이런 죄악된 욕심이 교우들 간의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다.

육신의 죄악된 욕심들이란 세상 중심적인 것들로서 육신의 정욕, 물질욕, 명예심, 자존심 등이다. 천국을 바라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런 세상의 욕심들을 버릴 수 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성도는 자신을 부정하고 빈 마음으로 그것을 감사히 거저 받는다. 성도의 순종은 결코 대가를 바라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응답하는 감사의 순종이어야 한다. 그러나 신자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 세상적 이기심과 명예심 등의 욕심을 가진다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싸움과 다툼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런 세상적 욕심들을 다 버린다면 서로 다투고 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2-3절] . . . 너희가 얻지 못하는은 구하지 아니함ियो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성도는 무엇이든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성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기도의 효력을 아는 자들은 시시때때로 또 비상한 때에 기도하기를 힘쓰며 또 기도한 바를 얻으며 따라서 영육의 부족이 조금도 없는 삶을 살 것이다. 다윗은 시편 65:2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라고 고백하였다. 주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고 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다(마 7:7-8).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며 성도의 특권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또 악한 동기와 의도를 가진 자들의 기도도 결코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악을 품은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세상적 욕심을 품고 그것을 위해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며 그는 결코 구한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구한 것은 그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칼을 달라고 할 때, 엄마가 그것을 그 아이에게 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에게 구하는 것들 중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결코 주지 않으실 것이다.

[4절] 간음하는 [남자들패(전통사본) 여자들]이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한다’는 말은 육신적 의미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인다. 육신적으로 간음하는 것은 육신적 욕망을 따라 행하는 육체 사랑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영적으로 간음한다는 것은 우상숭배, 세상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등 세상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했다(골 3:5).

간음하는 자들은 세상과 벗된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은 세상의 욕망을 다 버림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 2장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하였다(요일 2:15-17).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성령께서는 신자들 속에 거하신다. 주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요 14:16).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롬 8:9). 그런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해 시기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시나산에서 주신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 . .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출 20:4-5). 그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의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질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랑, 명예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의 욕망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내세 천국만을 바라며 살아가야 한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란 이 세상의 것들을 미워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세상 욕심을 극복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 은혜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편에서도 성실해야 한다. 우리는 우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한다. 교만과 세상 욕망은 친구이다. 교만은 이 세상적인 명예심에서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7-10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

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 이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한다.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하여 떠나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죄악된 욕심을 물리치고 성경을 더 많이 더 자주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해야 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사랑하려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한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마 6:24). 우리는 이 세상적 욕망들과 명예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고 내세 천국만 바라보아야 한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과거의 삶을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높이실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 욕심들을 다 버리고 이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요한일서 2: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은 일종의 우상숭배이다. 또 다툼들은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다. 우리는 세상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 교만은 불신앙, 하나님 거역, 불순종을 만들고 겸손은 하나님 인정과 순종을 만든다. 사람이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케 된다(잠 16:18; 18:12).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며 또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를 꼭 붙들고 따르는 것이다(신 10:12-13, 20).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만 바라자.

11-17절, 비방과 자랑을 버리라

[11-12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전통사본에는 없음)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도들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주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마 7:1). 야고보는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한다. 첫째로,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사람을 논단[비방]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율법의 말씀(레 19:16, 18)에 어긋난다는 뜻일 것이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결국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이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율법을 제정하신 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을 판단하실 이도 하나님이다. 우리는 단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을 뿐이고, 우리의 행위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교훈은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교회적 판단과 비평의 사역을 금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며 교회의 파수꾼 된 목사들은 교회의 성결과 유익을 위해 필요할 때 판단과 비평을 해야 한다. 이런 일은 교회의 권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목사들은 설교시에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게 해야 한다. 오류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말씀을 주신 목적이다(딤후 3:16).

구약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였듯이(렘 23장; 겔 34장), 신약시대에도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목사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들이 필요하였다(갈 1:8-9; 벧후 2:1-3).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들의 배교와 타협의 죄악에 대해 책망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다. 성경은 명백한 교리적, 윤리적 오류에 대해서 판단할 것을 분명히 가르친다(롬 16:17-18; 고전 5:11-13; 살후 3:6, 14-15).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利)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중에’라는 말은 이 교훈이 일차적으로 교인들에게 주신 것이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님을 보인다. 물론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교훈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며 섬긴다는 자들인데 바르게 살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신 것이다. 당시의 교인들 중에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 없는 헛된 계획이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1년 후의 일을 계획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무엇이뇨 함이라.]⁸⁾ [이는] 너희는[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나라[안개임이니라](전통본문).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는 것이지, 내일 무슨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라는 원어(아트미스 ἀτμός)는 ‘수증기’나 ‘김’을 가리킨다. 수증기가 공중

8) Byz p¹⁰⁰ vg syr^p cop^{sa bo} 등이 그러함.

에 올라갈 때 무엇이 있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이 사라져 버리듯이, 사람은 살아 있을 때에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 죽으면 땅에 묻을 시체만 남는다. 그러므로 시편 39:4-6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한 어려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고백하였다. 또 그는 역대상 29:15에 보면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라고 말하였다.

[15-17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성도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미래를 계획하지 말고 또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주[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말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적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 곧 출산과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손 안에 있다.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창 4:1)라고 말한 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생명[‘영들’]의 하나님이며”라고 불렀다(민 16:22). 욥은,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하였고(욥 12:10), 다니엘은 하나님을 “[벨사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였다(단 5:23). 주께서는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그 농부의 영혼을 오늘밤에 도로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눅 12:20).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불렀다(행 17:25).

성도는 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말해야 한다. 성도의 모든 활동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잠언 3:6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했고, 잠언 16:3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고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말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미가 6:8은 말하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仁慈)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바른 태도이다.

헛된 계획은 말로 표현될 때 헛된 자량이 된다. 헛된 자량은 다 악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권자 하나님을 무시하며, 또 보장 없는 미래의 일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나의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도가 헛된 계획을 하고 헛된 자랑을 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함이다. 디도서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인생의 바른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야 한다. 사람이 돈만 벌기 위

해 산다거나 돈을 벌어서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 가족 정도를 위해 사는 것은 헛되고 악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기고 비방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며 남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입법자와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힘써야 한다.

둘째로,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오해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과 교회의 거룩함과 유익을 위해 교회적 판단과 비평을 하는 것을 성경에 위배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오히려 주의 종들이 그런 사역을 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그것은 성도들의 회개와 성화를 위해 유익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많은 주의 종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 안의 잘못된 풍조들을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고 침묵하는 데 있다. 오늘날은 교회들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에 대해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판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사람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의 일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권적 섭리자로 바로 알고 믿는 바른 태도이다. 우리는 세상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5장: 인내와 기도

[1-6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는 부자들이 그들에게 닥칠 고생을 인하여 울며 통곡하라고 말한다. 그는 부자들의 잘못을 몇 가지로 증거한다.

첫째로, 그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그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들의 옷들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그 녹은 그들의 잘못을 증거하고 불같이 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저축은 필요하고 좋으나 정도껏 해야지 지나치면 악이 된다. 돈은 선한 일에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세상은 끝나가고 있고 심판 날은 다가오고 있다. 돈의 과도한 저축은 죄이다. 물질적 부요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케 하고 신앙의 해이와 배반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기본적 생활을 위한 저축 외에 돈은 전도와 구제를 위해 선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둘째로, 그들은 그 부의 축적에 불의함이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품꾼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지체했거나 돈을 떼어먹으려 했다. 일꾼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시켰으면 임금을 지체치 말고 즉시,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야 하고, 만일 외상으로 시키려 했으면 미리 약속했어야 하였고, 만일 줄 돈이 부족했으면 일 시키는 것을 연기했어야 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품꾼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다.

셋째로, 그들은 사치하고 연락했다. 그들은 사치와 연락으로 그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사치는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옷, 신발, 가구, 자동차 등 우리의 모든 것에 적용된다. 연락(宴樂)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즐거움 이상의 쾌락을 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오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빠지면 나쁘다. 가난한 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사치와 연락은 죄악이다.

넷째로, 그들은 심지어 옳은 자들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악한 일에 사용했다. 옳은 자들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7-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가까움이니라].

세상에서는 악한 부자들이 의인들을 핍박할지라도,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오래 참아야 한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며 씨를 뿌리고 추수의 때를 오래 기다리듯이, 우리는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한다. 주의 재림의 날은 점점 가까워 온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주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반복해 말씀하셨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포함해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함일 뿐이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밖에 서 계시니라.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신자들은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고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말아야 한다. 고난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기 위해 고난의 현실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현실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10-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니 너희가 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였다. 그들은 백성에게 배척을 받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고난 중에도 오래 참았다. 인내의 한 예는 욕이다. 욕은 재물의 심히 큰 손실과 자녀들의 죽음과 자신의 건강의 상실이라는 큰 고난 속에서도 인내했고 마침내 승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욕의 후년에 같은 수만명의 자녀와 배갑절의 재물을 복으로 주셨다. 주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눅 8:15). 환난 시대에 성도의 덕은 믿음과 인내이다(계 13:10; 14:12).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맹세(swear, oath)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자신의 말과 증언이나 약속의 진실함을 말하는 것이다. 본문은 주께서 주신 교훈과 같다(마 5:33-36). 개혁신교회는 이 교훈이 맹세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이름 외에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쉽게 맹세하고 쉽게 변경하는 당시의 잘못된 풍조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만일 본문이 맹세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이거나 정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구약성경의 계명과 어긋나며 예수님과 사도들 자신도 잘못을 범한 자들이 될 것이다(신 6:13; 10:20; 마 26:63-64; 고후

1:23; 갈 1:20). 그러므로 합법적 맹세는 오늘날에도 정당하다고 본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낙망치 말고 기도해야 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한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병에 걸리면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을 청해야 한다. 본문의 ‘장로들’은 목사와 장로를 포함하는 말이다. 목사와 장로의 첫 번째 직무는 교인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들은 병에 걸린 자들을 심방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초대 교회의 풍습이었던 것 같다. 마가복음 6:12-13,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은 당시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든지 아니면 단순히 성령의 은혜의 상징물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오늘날 우리는 의술과 약품을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로 감사히 사용한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병의 치료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병을 주신 이도 치료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의 정확한 원인을 아시며 그것의 완전한 치료 방법도 아신다. 그가 원하시면 우리의 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죄와 병이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물론 욕의 경우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신명기 28장의 증거대로, 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 병에 걸렸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죄와 부족이 깨달아지면 고백하고 버리기를 결심해야 한다.

[16절] (이러므로)(전통사본)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의 거리끼는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그런 후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죄의 고백은 때때로 공개적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실제로 의롭게 사는 성도를 가리킨다. ‘간구’라는 원어(테에시스 엔에르구 메네 δέησις ἐνεργουμένη)는 ‘힘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라는 뜻이다. 성도들의 힘있는,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병 치료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또한 범사에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다.

[17-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는 기도 응답의 예로 엘리야 선지자를 들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性情)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와 다른 초인간적(超人間的)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능력의 역사는 단지 그의 기도 생활에 있었다.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간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늘이 비를 주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19-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때로는 진리를 떠났던 자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 일은 참으로 귀하다.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귀하지만, 죄인의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더 귀하다. 그것은 한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것이다. 우리는 병환자 심방과 기도를 통해 한 사람의 심신의 병뿐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도 할 것이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는 부자들에게 대한 교훈이다. 부자들은 재물을 땅에 쌓지 말아야 한다. 주께서는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교훈하셨다(마 6:19-21). 또 부자들은 불의의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나 강도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부자들은 사치하고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자들이 많은 세상에 사치하고 연락하는 것은 최악이다. 우리는 근검절약하며 살아야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아야 한다. 주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를 공의로 심판하려 오실 것이다(벧후 4:1). 야고보는 본서 1장에서도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말했다(약 1:4). 우리는 특히 고난 중에 서로 원망치 말고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여 오래 참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하고 또 맹세할 때 경솔히 하지 말아야 한다. 맹세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자신의 말의 진실함을 증거하는 것이며 신약시대에도 합법적 맹세는 정당하다고 본다.

넷째로, 우리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가를 부르지만, 고난을 당할 때, 특히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특히 병든 자는 목사들과 장로들을 청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다. 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서로 고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은 구주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실제로 계명에 순종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인의 간절한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베드로전서

서론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이다(1:1). 그는 본 서신의 내용을 실루아노에게 불러주어 대서(代書)케, 아마, 번역케 하였다(5:12). 베드로후서 3:1은 베드로전서를 가장 먼저 인용한 구절이다. 폴리갑, 터툴리안,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본 서신을 인용하였고, 이레니우스는 본 서신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전서라고 언급하였다.

본 서신의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되는데, 그들은 주로 소아시아 지방에 살았던 이방인 신자들이었다. 베드로전서 2: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4:3,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본서의 **저작 연대**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들(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보다 후이며 사도 베드로의 순교 전인 대략 주후 65년 내지 66년일 것이다.

본 서신의 **특징적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다. 본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서신이다(1:6-7; 2:18-21; 3:14, 16-17; 4:12-19; 5:8-10).

베드로전서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믿음의 시련

2장, 성도의 특권과 의무

3장,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교훈, 선행에 힘쓸 것

4장,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불 시험을 이기라

5장, 장로들과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

1장: 믿음의 시련

1-7절, 산 소망과 믿음의 시련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그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NASB, NIV)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한다. ‘사도’는 주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신 자들로 열두 제자들과 바울을 가리킨다(눅 6:13; 롬 1:1).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나가 전도하며 권능을 받아 병자들을 고쳤던 자들이었다(마 10:1; 막 3:14-15).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했다. 위의 땅들은 오늘날 터어키 지역이다. 그는 2:11에서도 성도를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이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은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했다(29:15).

베드로는 성도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 말하였다. 첫째,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미리 아심’이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을 미리 아셨다는 뜻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다. 그러나 이 말은 단지 그런 지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나타내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엡 1:4-5).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

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둘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의 피 뿌림을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른 자들이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다(눅 9:23; 14:26, 33).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이다(롬 1:5).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다(롬 3:24).

셋째, 성도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것이 죄 사함의 구원이다. 고린도전서 6:11,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디도서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일차적 사역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이다. 죄인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는다. 성령께서는 죄인의 마음을 밝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이 구원을 통해 성도는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안이 더욱 많기를 기원한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다. 평안은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며, 그것은 몸의 건강과 물질적 안정과 사회적 평안을 포함한다.

[3-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성부(聖父)와 성자(聖子)의 관계를 나타낸다.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서로 구별되시지만,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다. 이것이 성경이 밝히 계시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이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많으신 공훈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들의 거듭남(중생, 重生)은 하나님의 전적인 공훈로 된 것이다. 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중생의 근거이다. 죄의 형벌은 죽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 즉 대리적 형벌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영원한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심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사실을 확증하고 보증하였다. 하나님의 선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도, 성령의 중생케 하심도 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크신 공훈과 은혜의 결과이었다.

성도는 거듭남으로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죄의 결과는 죽음과 멸망이었고 거기에는 두려움과 절망만 있었다. 그러나 이제 죄씻음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은 산 소망인 것이다. 세상의 것들은 다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진다. 그래서 시편 102:26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라고 말하였다. 또 이사야 40:6-7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했은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된 기업 즉 천국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거룩하고 선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나라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것이다(롬 8:17).

[5-7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란 앞절에 말한 천국을 가리킨다. ‘말세에 나타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나타내신다는 뜻이다. 성도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하고 변화되어 영광스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또 성도들은 이 놀라운 구원 곧 영광의 천국을 얻기 위해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 요한복음 10:27-28에 보면,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다. 디모데후서 1:12에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이름[이 복음을]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구원과 영생]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하였다(딤후 1:12).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의 보호하심이 이와 같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하며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금의 제련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다. 없어질 순금도 용광로 속에서 제련함으로써 나온다. 성도들은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인격의 단련을 받아 거룩하고 겸손하고 믿음 있는 인격자가 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행들을 많이 함으로써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을 듣고 천국과 영생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3-4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을 이루는 줄 앞이로다”라고 말하였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구원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영생의 백성으로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케 하셨고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님만 믿고 성경 교훈만 순종해야 한다.

둘째로, 성도는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구원의 목표는 천국과 영생이다. 그것은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상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허무한 세상이며 인생은 나그넷길이다. 이 세상이 그러한 까닭은 인간의 죄 때문이었다. 죄가 있는 세상에는 썩어짐과 더러움과 낡고 쇠하여짐이 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세계이다. 그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세계이다. 그 곳에는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병과 죽음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계 21:4). 모든 성도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타날 영원한 저 천국에 있다.

셋째로, 성도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한다. 세상은 악하고 마귀와 악령들의 시험이 많고 우리 속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필요하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기도하며 공급받아야 한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많고 우리는 때때로 얼마동안 근심하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또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의 인격은 정금보다 더 귀하게 단련을 받는다. 그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이다. 금이 용광로에서 단련되어 순금이 되듯이, 성도는 세상에서의 시련을 통해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거룩하고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간다.

8-12절,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8-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원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은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사랑했으며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것은 주 예수님의 증인들인 사도들의 증언들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였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요 15:26-27). 2천년 신약교회의 역사나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믿고 사랑하는 것도 사도들의 증언의 책인 신약성경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였다. 우리는 상대방의 가치를 알 때 그를 사랑하게 된다. 우리는 예수께서 누구인지 알 때 그를 사랑할 수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음을 알 때, 그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

사람의 사랑은 교제와 대화로 표현된다.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때 그와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또 사랑은 봉사와 수고로 표현된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의 일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할 것이다.

사랑은 특히 기쁨으로 표현된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주를 기뻐하였다. 찬송가 85장의 저자는 이런 찬송 가사를 썼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뵈을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 죽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셨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하며 그래야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것이다.

(10-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은혜요 그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였던 바이었다. 또 그들 속에 역사하셨던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가 장차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으므로 선지자들은 그것이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연구했다. 베드로가 구약 선지자들 속에 역사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증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신성(神性)을 가진 분이시므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즉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 속에 역사하실 수

있었고 또 역사하셨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가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셨다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과 시편 16편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사야 53:5-6,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편 16:10,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때와 시기를 연구했다는 것은 다니엘 9:24-26을 예로 들 수 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70x7)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永贖)되며 영원한 의(義)가 드러나며 이상(異像)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重建)하라는 영(令)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7x7)와 육십이 이레(62x7)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성 밖에 둘러 판 못]가 이룰 것이며 육십이 이레(62x7)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70이레의 기한에 관해,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7x7)와 육십이 이레(62x7)가 지날 것이요”라는 말씀은 음력으로 69이레 즉 483년을 양력으로 환산하여(469년),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허락받았던(느 2:5-6) 느헤미야의 때 즉

바사 왕 아닥사스다 20년(느 1:1)인 주전 445년으로부터 계산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이 된다고 본다.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신약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드러났다. 예수께서는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서 나타나셨다. 또 이 사실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한 바이었다. 또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救贖) 사역을 보기를 위한 바이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뜻인 죄인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救贖) 사역을 보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특히 신적 구주이신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였다. 이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삼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셨다.

둘째로, 처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믿었고 그를 사랑했고 그를 기뻐했다. 그것은 사도들의 증거와 신약성경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뻐한다.

셋째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 죽었었고 지옥 형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장차 영광의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최종 목표다.

13-25절, 거룩과 사랑을 권면함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은 내태하고 해이하거나 정신 없이 살지 말고 깨어 있는 마음으로 바르게 살라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는 앞에서 말한 하늘에 간직된 기업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가리킨다. 그것은 천국과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가리킨다. 온전히 바란다는 말은 우리의 가치와 소망을 전적으로 거기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참으로 그것만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6:11-12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천국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하였다.

[14-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좇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알지 못했던 때 좇았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거룩해야 한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불결한 삶을 살았었으나 이제는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친히 말씀하셨다(레

11:44-45). 거룩은 죄를 버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생활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산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며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불순종과 불결의 죄들만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여 더러운 죄들을 버리고 의와 거룩과 선과 진실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18-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헛된) 행실에서 구속(救贖)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모든 성도가 기본적으로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救贖)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은과 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다. 그것은 몇 억 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예수님, 즉 의로우신 하나님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했다. 구원받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한 생활을 해야 한다.

[20-21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예정된)(KJV)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정된 분이시다. 그는 이 말세

에 우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되셨다. ‘이 말세’는 신약시대를 가리킨다. 구약 4천년의 역사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시대가 온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救贖)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중에서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

[22절] 너희가 [성령으로](전통사본)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깨끗한](전통사본)9)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깨끗케 되었고 우리의 마음도 깨끗케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성도는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예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한마디로 요약된 새 계명을 주셨다. 이미 실천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한다.

[23-25절] [이느](NASB, NIV)(의미상 보충) 너희가 거둔 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되었음이니라]. 그러므로(디오티 διότι)[이느](원문, KJV, NASB, NIV)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하였음이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9) Byz p⁷² N* C vg^{mss} syr^D cop^{sa bo} (arm) 등에 있음.

우리가 얻은 거듭남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되었다. 그 구원의 생명은 실제로 거룩한 순종과 뜨거운 사랑으로 계속 나타난다. 모든 육체는 풀같이 쇠하고 그 모든 영광은 꽃같이 다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삶이다. 이것이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세상에 나서 일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 즉 모든 죄인들의 공통적인 삶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허무한 삶인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전도서가 강조하여 교훈한 바이며 모든 사람이 일생을 마칠 때 즈음에 절감하는 일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또한 그의 말씀은 쇠하거나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새 생명도 쇠하거나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쇠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깨끗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죄인이었던 우리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救贖)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 말씀이 곧 우리가 받았고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

둘째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재림 때 받을 은혜 곧 영광스런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온전히, 간절히 소망하면서 늘 깨어 있는 생활을 하자.

셋째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거룩해야 한다. 우리는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으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의 깨끗함을 얻었으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

2장: 성도의 특권과 의무

1-3절,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

[1-3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궤홀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토 로기콘 아돌론 갈라 τὸ λογικὸν ἄδολον γάλα)[거짓 없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¹⁰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모든 ... 모든 ... 모든 ...’이라는 표현은 ‘온갖 종류의’라는 뜻이다. ‘악독’은 악한 생각과 뜻을 가리키며, ‘궤홀’은 거짓과 속임을 가리킨다. ‘외식’은 겉으로 선하게 보이나 마음 속에는 악한 것이요, ‘시기’는 다른 사람의 잘되는 것을 싫어하고 그를 깎아 내리고 미워하는 것이다. ‘비방’은 다른 사람에 대해 정당하지 않게, 악하게 비난하는 것을 가리킨다. 성도들은 이런 악독, 궤홀, 외식, 시기, 비방을 다 버려야 한다. 그런 것들은 옛사람의 성질들이며 마귀적인 성질들이다.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도 이러한 죄성들이 남아 있고 그들도 이런 악들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악들을 다 버려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는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젖에 비유하였다. 갓난아이들은 배가 고플 때 엄마의 젖을 먹고 싶어 운다. 아기는 몸이 안 좋으면 젖을 안 먹으려 하지만 정상적이면 엄마의 젖을 사모한다. 아기는 엄마의 젖을 잘 먹을 때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된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이라고 말한 것은 이단사설들, 인본주의적 생각들이나 말들, 사람의

10) Byz에는 없으나, p⁷² ⋈ A B C latt syr cop Clement 등에는 있음.

귀를 즐겁게 하는 흥미 위주의 말들과 구별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해야 하며 성경의 바른 교훈을 늘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이유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라기 위해서이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하였다(엡 4:13-16). 히브리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별했다(히 5:13-14). 우리는 주 안에서 순수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자라야 한다.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다(딤후 3:16-17).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이 고대 사본들과 역본들에는 있으나 전통사본들에는 없다.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은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다. 중생(重生, 거듭남)과 칭의(稱義)는 구원의 과거적 단계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1:23,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로마서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칭의는 법적인 구원이라고 한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8-9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성화(聖化)는 구원의 현재적 단계이다. 이것은 성도가 이미 얻은 의(義)를 실제로 그의 인격과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빌립

보서 2:12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이미 받은 구원, 장차 영화롭게 완성될 구원을 현재의 삶에서 드러내라는 것이다. 즉 온전한 경건과 의와 선과 진실을 실천하라는 뜻이다. 이것이 성화(聖化)이다. 이것은 우리가 순수한 성경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써 거룩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영화(榮化)는 구원의 미래적 단계이다. 그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일이다(벧전 1:5).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롬 8:24).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다 장차 영화롭게 될 것이다. 로마서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과거시제는 확실한 미래를 가리킨다. 예정하신 자들은 다 중생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법적인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영화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베드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한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킨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공훈과 은혜와 자비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진대 우리는 실제적으로도 의로운 자, 죄 없는 자, 도덕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마땅하다는 뜻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옛사람에 속한 모든 종류의 악독과 거짓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등 악들을 버려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자. 우리는 헛된 세상 이야기들을 버리고 성화의 힘이 되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가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

4-10절,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4-5절]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세워지고 있고](NASB, NIV)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배척과 버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인류의 구속자(救贖者)로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배로운 산 돌이시다. ‘산 돌’이란 그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주이심을 뜻한다고 본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약성도들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이라는 말(오이코스 프뉴마티코스 οἶκος πνευματικός)은 성도들이 모여 건립되는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는 돌들로 지은 건물에 비유된다. ‘신령한’이라는 말은 교회가 단지 물질적 건물이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 곧 성령의 전인 것을 나타낸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16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말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연합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에베소서 2:21-22,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약교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건축되고 있다. 이것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

는 거대한 교회이다. 지금도 이 교회의 건축 소리가 온 세계 곳곳에서 요란하게 들려지고 있다. 한 명의 영혼 구원을 통하여 벽돌 한 장이 쌓여 가는 이 건축은 예배당 건축보다 수천 배 더 큰 의미와 중요성이 있는 일이다. 우리 모두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유여하지 못해도, 이 영적 건축, 곧 전도와 성화의 일을 크게 여기고 힘써야 한다.

또 우리는 신약교회라는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제사장’이라는 원어(히에라투스마 *ιεράτευμα*)는 ‘제사장들의 집단’을 가리킨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들을 드려야 한다. 그 영적인 제사란 우리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가리킨다. 우리는 모든 악독과 속임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한다.

[6-8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시다. 이 세상에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고 더 귀한 것도 없다. 그러나 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린 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셨다. 많은 이들이 그 돌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어떤 이들은 영생에 이르게,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버려두셔서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정하셨다. 죄 가운데서 멸망 받을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9-10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이다.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들을 몇 가지로 증거한다. 첫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선택받은 증거는 우리의 참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다. 둘째로,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이라는 단어(바실레이오스 βασιλείος)는 ‘높은 특권을 가진’이라는 뜻이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를 섬기는 특권이 있다(히 10:19). 셋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다. 세상 나라들은 죄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며 우상숭배적이고 음란하고 부도덕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과 의와 진리와 사랑과 평안의 나라이다. 성도들이 그 나라이다. 넷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보배들이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은 아무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이 안전한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특권을 가지는 구원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기이한 빛’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의와 행복을 가리킨다. 심히 무지

하고 불경건했던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죄악들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값없이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허무와 불행과 영원한 죽음 아래 살았던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지식과 의와 행복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빛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이한 은혜와 사랑, 이 지식과 의와 행복을 마땅히 찬송하며 말과 행위로 증거해야 한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공훈도 얻지 못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공훈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과 행위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우신 산 돌이시다. 그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돌이시다. 그것은 다니엘이 본 바 세상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돌이다(단 2:34-35, 44). 예수께서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하셨다(마 21:42-44). 오늘날도 주께서는 영생의 구원의 일을 하신다.

둘째로,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권 있는 백성이 되었다.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큰 은혜를 감사하며 이 특권을 누리며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롬 12:1)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한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한다.

11-25절, 선한 사람이 되자

[11-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욕망들]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이다. 모든 영혼은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판단을 받아 천국 혹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물론 그것은 장차 부활할 몸이 들어가는 천국과 지옥과는 구별된다. 인생은 나그네길이며 돌아갈 영원한 처소가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내세를 준비한다. 구원은 꼭 받아야 하며 성화도 중요하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혼의 거룩한 성향을 거스르는 몸의 욕망들을 제어해야 한다. 그들은 교만과 미움과 음란과 거짓 등의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사람은 몸과 영 혹은 영혼의 두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 영과 영혼은 한 실체에 대한 다른 두 용어이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의 세 실체로 구성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과 전통적 개혁신학에 맞지 않는다. 성경에서 영 혹은 혼이라는 말은 분명히 구별 없이 교대적으로 사용된다. 몸은 물질적 실체이며 거기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없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영의 활동이다.

중생한 영 혹은 영혼은 범죄하는가? 중생한 영이 몸과 분리된 상태 즉 죽을 때에는 즉시 천국에 올라가며 그렇다면 그 영은 죄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생한 성도는 살아 있는 동안 범죄한다. 그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죄이며 그것은 다 영의 기능이다. 그러므로 중생한 영은, 비록 그 자체로는 죄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몸과 결합되어 있는 동안 한 인격체로 죄를 짓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죄성은 사람의 영과 몸 중 어디에 자리를 하는가? 죄성은

사람의 몸에 자리를 하며 그러므로 성도가 죽으면 그 영은 즉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몸에 죄성이 있다고 해서 몸을 죄악시하거나 천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화의 이치는 무엇인가? 성화는 중생한 영이 몸의 죄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개혁신학은 중생 즉 거듭남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그 ‘지배적 성향’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범죄할 수 없는 성향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몸에 남은 죄성을 이기기 어렵다.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속에 몸의 남은 죄성과의 싸움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를 이룬다. 로마서 8:13-14, “너희가 육신[몸의 죄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성령]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5:16,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도들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하게 삶으로써 그들에게 바르고 선한 생활의 본을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마 5:16).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일이 적지 않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 할 때, 바사 왕 아닥사스다를 모반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었다(느 6:6).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거짓으로 교묘히 자기 사람을 삼는다는 비난을 받았었다(고후 12:16). 그러나 느헤미야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충성된 종들이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어 선을 행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날에 깨닫고 하나

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것이다.

[13-15절]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디아 톤 퀴리온 διὰ τὸν κύριον)[주님 때문에]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칭찬]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이는 너희가]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니라](원문, KJV, NASB, NIV).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선한 삶은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데서, 예컨대, 옛날에는 왕과 방백들에게, 오늘날에는 나라의 통치자들과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데서 나타난다.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주의 이름 때문에 또 세속 사회 즉 국가의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거스름]이니 거스리는[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고 말했다(1-2, 4, 6절).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거짓말로도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지만, 성도들은 범사에 선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비난할 아무런 말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선해야 하고 흠 잡힐 데가 없어야 한다.

[16-17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존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은 로마서 7장의 진리이며 갈라디아서의 중심 진리이기

도 하다. 로마서 7:6,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義文)[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갈라디아서 5:1,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롬 8:1).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악을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한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13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했다.

성도의 선한 삶은 모든 인간 관계에서 나타난다. ‘뭇사람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특히 주께서 피흘려 사신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존중해야 한다. 또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위정자를 공경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이웃의 노인들과 교회의 노인들, 학교의 선생님들, 직장의 상사들, 나라의 대통령을 존경해야 함을 포함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8-20절] 사환들(오이케타이 οἰκέται)[집안의 종들]아, 범사에 온전히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친절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원문, KJV, NASB)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는 구원받은 종들에게도 선한 삶을 교훈한다. 그것은 주인들을 온전히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는 교훈이다. 또 종들은 선하고

친절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한다. 종이 어떤 잘못을 행하여 주인에게 지적을 받고 책망을 듣고 심지어 매를 맞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가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므로 그때 참는 것은 칭찬할 일이 못된다.

그러나 그가 선하게 행하는 데도 애매히 고난을 받고 그 고난과 그 슬픔을 잘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라는 말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한 양심 때문에’라는 뜻이라고 본다. 종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잘 참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실 것이다.

[21-25절] [이]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우리들]¹¹⁾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길 잃은 양들과 같았으나][전통사본]¹²⁾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성도는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런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셨고 우리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삶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각오해야 할 삶이다.

주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으나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

11) Byz vg^{cl} syr^p cop^{sa-ms} bo Tertullian 등이 그러함.

12) Byz p⁷² C 등이 그러함.

하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대속(代贖)의 제물이 되신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죄라는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예수께서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 당하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는 과거에 길 잃은 양들과 같았었다.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방황했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찾아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우리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다. 우리는 그의 인도와 간섭, 그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게 되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1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신적 욕망들을 제어해야 한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구원받은 자인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경건하고 선한 말과 행동이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 때문에 순복해야 한다. 우리는 세속 사회, 즉 우리나라의 통치자들과 관리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은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선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은 구주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救贖)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잘 참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친히 그런 고난을 당하셨고 길 잃은 양 같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까다로운 윗사람에게도 순복해야 한다.

3장: 선행에 힘쓰라

1-7절,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교훈

[1-2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흑도(道)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순복해야 한다. ‘순복하다’는 원어(히포타소 ὑποτάσσω)는 ‘순종하다, 복종하다’는 의미이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해야 한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고 말하였고(엡 5:22-23), 또 골로새서에서도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고 말했다(골 3:18). 아내들이 자기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다. 그것은 아내들의 의무이다. 거기에는 이의(異意)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은 이 교훈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받아들여야 한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할 목적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 즉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말로가 아니고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말로 구원하기 힘든 남편들이 그의 행위에 감동을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뜻이다. 말로 전도해서 안 되면 행위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원리로, 우리는 이웃 사람들을 말로 구원하기 어려울 때 우리의 선한 행위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힘써야 한다.

남편을 구원시킬 아내의 행위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말한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남편을 두려워함을 다

포함하는 것 같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을 자기 주인과 같이 생각하여 두려워함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다. ‘정결한’이라는 원어(하그노스 ἁγνός)는 ‘순결한, 거룩한’이라는 뜻이다. 아내들은 특히 음란한 세상 속에서 단정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

[3-6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엠프로케스 트리콘 ἐμπλοκῆς τριχῶν)[鬘은 머리를 하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헤쉬키오스 ἡσύχιος)[조용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내들의 선한 인격은 그들의 단장에서 나타난다. 그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은보석의 목걸이,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차고 값비싼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같은 외적인 단장에 치중하지 말아야 한다. 사도의 교훈은 머리 단장이 죄악이므로 머리 단장을 도무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 머리털은 헝클어져 있는 것보다 씻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금은보석의 장신구들과 아름다운 옷들도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단지, 성도들은 외적 단장에 시간과 돈을 많이 쓰며 사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외적 단장은 가치가 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아내들의 단장은 내면적이어야 한다. ‘마음의 숨은 사람’은 사람의 내면적 인격성을 가리킨다. 여인의 내면적 인격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되어야 한다. 여성도들은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 사람의 몸은 세월이 갈수록 쇠해지지만, 이러한 고상한 인격성은 그 성질상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외적인 단장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 단장, 곧 고상한 인격성이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인 것이다.

사도 베드로의 교훈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여성도의 이러한 덕은 예전부터 경건한 여성도들이 가졌던 덕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유행하는 이 세상 풍조에 따라 산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여인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 하였고 이런 내면적 덕으로 자신들을 단장하였던 것이다. 그 대표적 예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었다. 그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 이라고 불렀다. 창세기 18:12에 보면, 그는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하였다. 이것은 남편에 대한 그의 복종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오늘날도 여성도들은 사라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며 선하게 살아야 한다.

[7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의 의무를 교훈한 후 남편들의 의무도 교훈한다.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들과 동거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가리킬 것이다. 결혼은 남녀가 연합하여 한 인격처럼 사는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이다. 결혼의 세 가지 목적은 첫째, 남녀가 외롭지 않도록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며(창 2:18),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함이며(창 1:27-28), 셋째, 음행 방지를 위함이다(고전 7:2).

결혼에 있어서 남편의 의무는 사랑이다. 바울은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교훈하였다(엡 5:25).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은 무조건적, 희생적 사랑이었다. 우리 속에는 그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선한 것이 없었다. 남편들은 그런 무조건적, 희생적 사랑으로 아내들

을 사랑해야 한다. 남편들의 따뜻한 말 한 마디와 얼굴 표정과 행위는 단조로운 집안 일로 피곤한 아내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것이다.

성(性)에 대한 바른 지식도 필요하다. 인간의 성은 더럽고 죄악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이다(창 2:25). 그것은 부부의 사랑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성은 단지 부부 관계에서만 사용되도록 명령되었고, 그렇지 못한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남편들은 아내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 아내는 남편의 갈빗대이며, 남편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이 아내들을 귀히 여겨야 할 이유로 첫째, 아내들이 더 연약한 그릇이며, 둘째, 그들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는 것을 들었다.

여성은 대체로 남성보다 몸이 연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예민하다. 그렇지 않다면 옛날부터 전쟁에 남자들만 아니고 여자들도 참여했을 것이다. 이런 연약한 아내들이 남편들과 자녀들을 위해 노동과 같이 힘든 집안 일을 하며 늙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그들을 외롭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아내들은 생명의 은혜, 즉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들이다. 아내들은 이 세상에서만 아는 관계가 아니고 천국에까지 같이 갈 반려자들인 것이다. 물론 천국에서는 부부로서의 짝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내들은 천국에서도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영원한 동료들이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들과 동거하고 그들을 귀히 여길 때 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부부의 사이가 좋아야 기도도 잘 되지, 부부가 서로 다투고 나면 기도의 문이 막힌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죄가 되기 때문이다. 죄는 우리의 기도의 문

을 가로막는다. 요한일서 3:21-22,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의 선한 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성도들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결혼한 이들은 부부 사이에서부터 성경의 교훈대로 바르고 선하게 행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순복해야 한다. 그들은 믿지 않는 남편도 그들의 정결하고 두려워하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며, 아내로서의 마땅한 의무이다. 그럴 때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생긴다. 아내들의 선행은 특히 외적 단장이 아닌 내면적 단장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도들은 지나치게 머리를 꾸미거나 금은패물로 치장하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등 사치하지 말아야 하고 온유하고 조용한 내면적 덕을 소유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것은 썩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사람의 가치는 경건과 도덕성에 있다. 그것이 사람의 사람다운이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며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므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썩지 않을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행복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둘째로, 남편들은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아내들과 동거하며 아내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남편들은 결혼의 의미와 목적과 의무를 잘 이해해야 하며 아내들이 남편들의 갈빗대이며 더 연약한 그릇이며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하여 여겨야 한다. 또 그럴 때 남편들은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막힌다. 좋은 부부 관계는 신앙생활에 유익하지만, 자주 다투면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고 해가 된다.

8-12절, 선한 마음을 가지라

[8-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호모프론 ὁμόφρων)[같은 생각을 하며] **체휼하며**(심파테스 συμπαθής)[같은 감정을 가지며, 동정심(同情心)을 가지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유스플랑크 노스 εὐσπλαγγνος)[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며] **겸손하며**(필로프론 φιλόφρων)(전통사본)[친절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몇 마디 권면하고 마치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의 권면과 교훈을 좀더 계속되게 하셨다.

첫째로, 그는 우리에게 다 생각을 같이하라고 권면하였다. 성도들의 교제는 생각의 일치에서 이루어진다. 로마서 12:16, “서로 마음[생각]을 같이하며.” 고린도전서 1:10, “같은 마음[생각]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빌립보서 2:2, “마음[생각]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생각]을 품어.” 생각이 서로 같아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 생각이 서로 다르면 다투고 분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한다.

둘째로, 그는 우리에게 같은 감정을 가지라고 권면하였다. 사람은 생각이 첫째로 중요하지만, 감정도 중요하다. 감정이 같은 것이 좋다. 어떤 이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이는 그것을 싫어하면 서로 사랑으로 단합하기 어려울 것이다. 성도들이 어떤 일에 대해 좋아하는 같은 감정을 가지고 다른 일에 대해 싫어하는 같은 감정을 가질 때 일치 단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다.

셋째로, 그는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했다. 그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덕목이다. 예수께서는 친히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

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했다(고전 13:4-7).

넷째로, 그는 우리에게 남을 향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였다. 우리는 상대방의 부족과 연약을 볼 때 멸시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도 바울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교훈했다(엡 4:32).

다섯째로, 그는 우리에게 친절하라고 권면하였다. 겸손함과 친절함은 거리가 멀지 않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겸손하고 친절해야 한다.

여섯째로, 그는 우리에게 남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권면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주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고 말씀하셨고(마 5:39) 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하셨다(마 5:44 전통사본; 눅 6:27-28). 사도 바울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교훈했다(롬 12:17).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그 복이란 죄사함과 구원의 복, 평안의 복, 또 영광스런 천국과 영생의 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복을 깨닫고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또 서로에게 이 복으로 축복해야 한다. 사람이 이 구원과 영생의 복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부족한 형제라 하더라도 이 복에서 제외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 이 복을 빌어야 한다.

[10-12절] 그러므로(가르 γὰρ)[이느](KJV, NASB, NIV)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꾀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하였음이니라].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천국의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한다. 죽음은 죄 때문에 왔고 그것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주셨고 천국의 복된 날들을 약속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일을 확증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런 놀라운 약속의 세계를 바랄진대, 거기에 합당한 자들답게 세상을 살아야 한다.

우선, 우리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한다. ‘악한 말’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말을 가리킨다. 물론, 불결하고 더럽고 음란한 말들도 악한 말에 포함된다.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악하고 더러운 말을 그쳐야 한다.

또 우리는 입술로 케홀 즉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21:8), 주 예수께서도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22:15).

성도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한다. 선은 남에게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이다. 또 성도는 서로 간에 화목을 구해야 한다. 성도는 악과 거짓을 버리고 선과 화목을 구해야 한다. 말에 있어서 뿐 아니라 행실에 있어서도 그러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5:22-23,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2:14,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하나님의 눈은 의인들, 곧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실제로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자들을 향하신다. 그것은 그의 사랑의 관심과 돌보심을 나타낸다. 그것은 그들이 연약할 때 격려하시고, 낙심할 때 위로하시고, 위험할 때 지키시고 도우시며, 그들이 범죄할 때 근심하시고 책망하시는 그의 관심과 돌보심이다. 또 하나님의 귀는 의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의인들이 감사할 때나 회개할 때나 무엇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낮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그것은 그가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기억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엄위하시고 두려우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같은 생각과 같은 감정을 가져야 한다. 로마서 12:15,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빌립소서 2:2,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것은 성도들이 서로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상대가 당하는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다.

둘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な 생각을 가져야 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상대의 허물과 부족을 용서한다. 우리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친절な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에베소서 4:32,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셋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복을 빌고 악한 말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목해야 한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교훈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성도의 본분이다. 마태복음 5:44,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13-17절,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으라

[13-14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너희가 선을 본받는 자라면] (전통사본)¹³⁾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선을 본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요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남에게 악을 행치 말고 선한 자가 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딤후 3:15-17).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사랑의 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2:10,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救贖)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선을 본받는 자라면, 양심이 있는 자들은 그런 우리를 잘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이다. 주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다(마 5:10). 그러므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

13) Byz vg^{ms} 등이 그러함.

나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현세와 내세의 확실한 구원의 보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할 것도 없으며 그것을 근심하고 염려할 것도 없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하나님을](전통사본) 주(主)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거룩하게 모셔야 한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다. 그는 사람들을 공의로 통치하시고 악인들에게 보응하시는 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세상의 미래와 종말을 염려하지 않는다. 또 지금 세상에서 활개치는 악인들의 위협과 핍박과 악행들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바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해야 한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의 천국과 복된 영생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영광의 천국과 복된 영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구원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내세의 소망에 대해 간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화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을 것이며 지금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16-17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너희가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일 때문에〕(전통본문)¹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낸다. 마태복음 12:35에 보면, 주께서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악한 것과 거짓과 음란한 일을 많이 생각하면 우리의 말과 행위는 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한 일을 많이 생각하면 우리는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한 말과 행위를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선하게 살 수 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으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악을 행한다고 비난했던 그들의 악한 비난이 거짓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이며 사도들과 초대 성도들이 당한 고난이었다. 그것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당연히 받을 고난이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각오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14) Byz ⚡ A C it vg^{mss} syr^p cop^{bo} 등이 그러함.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의와 선을 행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성도가 의와 선을 행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이다. 14절, “의를 위하여[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마태복음 5:10,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주 예수께서 친히 가신 길이었고 주의 사도들과 초대 성도들이 갔던 길이였다.

둘째로, 우리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아야 한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대주재자이다. 그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류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개인적, 사회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광의 천국과 복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의 우리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항상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거나 무디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야 하며 특히 악한 자들 때문에 비난을 받고 해를 당할 때라도 끝까지 그러해야 한다. 그것이 구원 얻은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말과 행동이어야 한다. 그것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 백성이 되는 것이다.

18-22절,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고난을 받으사]¹⁵⁾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성령]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한 번’이라는 원어(ἁπαξ ἅπαξ)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낸다(히 7:27; 9:12, 26, 28; 10:10).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심이었고 우리로 하나님과의 연합과 화목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성령]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본문은 난해구절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몸과 영을 예수님의 몸과 영으로 보는 것(RSV, NASB)은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영이 살리심을 받으려면 영도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지만, 예수님의 영은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육체’(σαρκός σάρξ)는 예수님의 인성, 즉 사람으로서의 영육을 가리키고, ‘영’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KJV, NIV). 즉 본절은 예수께서 사람으로는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능력으로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뜻이라고 본다.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성령으로](KJV, NIV)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영들에게 가서서 전파하셨었느니라](원문).

‘옥에 있는 영들’은 다음절의 말씀대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하여

15) Byz B 등에 있음. 그러나 p⁷² ⋈ A C vg^{cl} syr^p cop^{sa bo} arm Clement Cyprian 등에는 ‘죽으사’로 되어 있음.

멸망당해 지금 지옥에 있는 영들이다. 본절도 성경에서 난해구절들 중 하나이다. 예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왜 저 영들에게 가셨고 또 무엇을 전파하셨는가?

몇 가지 해석들이 있다. 천주교회는 예수께서 죽으신 후 구약 성도들이 거하고 있던 ‘선조 립보’(‘립보’는 ‘지옥의 변두리’라는 뜻임)에 내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천국에 들여보내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본문은 죽은 악인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타난 진리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고정된 큰 간격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눅 16:26).

루터교회는 본절을 예수께서 (부활 직전 혹은 직후에) 실제로 지옥의 영들에게 가서서 승리의 영광을 선포하셨음을 뜻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 전에 지옥에서 승리적 행진을 하신다는 것은 적당한 생각이 아닐 것이고, 부활 후에 가셨다면 영으로 가셨다는 것이니 그것도 역시 적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본절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의 승리의 선포 사건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바빙크, 크레다너스). 그러나 어거스틴을 비롯하여 기타 여러 성경학자들은 본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서신을 쓸 때에 지옥에 있었던 저 영들에게 옛날 노아 시대에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 마지막 해석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인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

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음란하고 강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오래 참으셨고 심판을 120년간 보류하셨다고 보고(창 6:3), 그 동안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노아의 8식구들 외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는 자들의 수는 심히 적었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예수께서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다가 마침내 멸망할 자들은 수가 많으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다가 영생에 이를 자들은 수가 적다고 말씀하셨다(마 7:13-14). 구원받는 자들의 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수보다 비교적 매우 적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화로 그 적은 수에 들기를 원하며 감히 그 수에 든 것을 감사한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 몸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의 물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는 세례에 비교할 수 있다. 세례는 죄 씻음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을 상징하고 확증한다. 물론, 물로 받는 세례가 ‘몸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후에도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세례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고 표현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 받은 자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인 것이다.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증거한다. 고난의

주께서는 부활하셔서 영광의 천국에 올리우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신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심을 증거한다. 마가복음 16:19,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행전 1:9,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로마서 8:34,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히브리서 1:3, “[그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8:1,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10:12,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2:2,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천사들은 그에게 순복하고 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왕권, 영계와 물질계에 행사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낸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삼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주적 왕권을 행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예수님은 왕들 중의 왕이시다.

둘째로, 우리는 옛날의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오늘날 세상에서 세상의 불경건하고 음란한 풍조를 멀리하며 배격하고 노아와 그의 여덟 식구들같이 오직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경의 교훈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 즉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고난을 당하신 그를 본받아 우리도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복음과 그의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4장: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1-6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1-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전통사본)¹⁶⁾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무장하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성도를 가리켰다고 본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3:18) 우리도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해야 한다, 즉 우리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뜻이다. 로마서 6:6-7,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었다. 사람의 욕심은 죄를 만드는 원인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선한 생활을 해야 한다. 로마서 6:12-13,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에베소서 4:22-24,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16) Byz A (cop^{bn}) arm 등에 있음.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3:12-14,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宴樂)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는 이방인의 뜻을 좇아 죄악된 생활을 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宴樂)과 무법한 우상숭배의 삶에 이끌리고 거기에 빠져 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지난날의 죄악된 삶으로 족하다. 그 죄악된 삶도 부끄러운 것뿐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의 낙을 누리며 살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죄악된 일에 기웃거리지도 말아야 한다. 성도에게도 죄의 충동은 있으나 더 이상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죄악된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기 때문이다!

[4-5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直告)하리라.

성도가 세상 친구들과 같이 극한 방탕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를 이상히 여기며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친구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주께서는 마지막 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다. 사도행전 10:42,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디모데후서 4:1-2,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

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의인들과 악인들은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들의 죄들을 다 직접 고백하게 될 것이다.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사람들을 따라,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장차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본문의 뜻은, 현재 죽은 자들에게도 그들이 살아 있었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고, 비록 그들이 죽었지만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 영이 영생의 생명이므로 살아 있고, 육체로는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라는 뜻이라고 본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삶이 지나간 때로 죽은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과거에 어두움에 거했고 방탕하고 술취했고, 음란하고 호색했고, 서로 다투고 시기했을지라도,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줄 알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요한일서 3:9,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계속]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यो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음이라.”

둘째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롬 6:13). 우리는 날마다 심령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어가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그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행 24:15)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행 10:42; 딤후 4:1).

7-11절, 근신, 사랑, 대접, 봉사

[7절] [그러나](KJV)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준다. 첫째로, 그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교훈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 구약성경의 문자적 연대 계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전 4천년경에 천지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후 4천년이 지난 때 주 예수께서 오셨고 신약시대가 시작되었다. 사도들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했다. 고린도전서 10:11,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요한일서 2:18,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것은 세상의 일들과 육신의 쾌락에 빠져 있거나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을 말한다. 기도 생활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생활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의 일들을 감사하며 우리의 부족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이해하고 그 뜻을 실천할 힘을 구하여 얻는다.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덮음이니라].

둘째로, 우리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1:22,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것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순종하는 일이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롬 13:10).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잠 10:12). 주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서로 용서해야 함을 보여주셨다. 서로 사랑함은 상대의 허물과 부족을 용서함으로써 가능하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오래 참고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다.

[9-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셋째로, 우리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대접해야 한다. 대접하는 것은 서로를 마음으로도나 말로 너그럽게 대하며 상대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방문하거나 말과 물질로 돕는 것이다. 성도가 서로 대접하는 것은 받을 것을 예상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베푸는 것이다. 계산적이지 않게 대접하는 자는 상대가 자신을 위하지 않을 때라도 크게 마음이 상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과 건강과 재물을 주셨고 또 가정과 사회를 주셨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것인 양 우리 마음대로 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맡은 청지기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봉사해야 한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영광과 권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움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는 세상 일과 육신의 쾌락에 너무 빠지지 말아야 한다. 누가복음 21:34, 36,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닷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들을 힘써 행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주께서는 친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요 13:34).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며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베드로전서 1:22,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잠언 10:12,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우리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 상대방의 부족과 연약을 용서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상대를 대접해야 한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서로를 향해 너그럽게 대하기를 힘써야 하며 시간과 물질로 서로 섬기기를 힘써야 하며, 또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겨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재능과 지식, 건강과 시간,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섬겨야 한다. 우리는 먼저 믿는 형제들을 섬기고 또 힘있는 대로 모두를 섬김으로써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12-19절, 성도의 고난

[12-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이런 저런 고난들이 많다. 시편 34:19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한다. 구약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듯이,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레 26장; 신 28장). 신약 성도들도 예수님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육신의 남은 죄성이나 죄의 습관 때문에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히 12장). 그런 징벌이 없으면 중생도 못한 자일 것이다. 히브리서 12: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런 징계는 사람을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인격이 되게 한다.

그러나 육의 고난과 같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고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와 같이 예방 주사 같은 고난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것은 그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려 하심이었다(고후 12:7). 그러나 이런 고난 외에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 있다. 세상의 비방과 핍박과 죽임 당함도 있다.

특히 성도의 이 마지막 경우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은 2천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되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들은 성도에게 남아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고 의로우셨으나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마태복음 5:11,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골로새서 1:24,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도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 줄 알고 즐거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가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참된 성도로서 그를 영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지나가고 있다. 기쁨도 슬픔도 지나간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성도들은 주님과 천국으로 인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14-16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는 그들에게 비난을 받으셨으나 너희에게는 영광을 받으셨느니라(전통사본).¹⁷⁾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이 일로](전통사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그들 위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이 확인된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욕할 때 성도들 위에 계신 성령님도 비난하고 욕한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주 하나님과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그에게 영광 돌린다. 성도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

성도는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는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남의 일을 참견하다가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17-18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17) Byz vg^{ww} cop^{sa} (bo-ms) Cyprian 등에 있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가라지와 염소 같은 자들에게 우선 해당되는 말씀일 것이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히브리서 12:5-6, 8,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나 현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엄한 징계나 벌이 있다면,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내려질 심판은 얼마나 더 엄중하겠는가? 현재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경건치 않고 순종치 않는 죄인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성도들은 현재 하나님의 엄한 징계의 고난을 체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차 있을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로부터 자유와 모면을 얻지만, 악인들은 현재 평안할지라도 장차 있을 영원한 형벌의 멸망, 즉 영원한 지옥 불못의 벌을 피할 수 없으니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신실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란 앞에서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12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13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14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16절) 등으로 표현되었다. 성도의 고난은 아무리 불같은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다. 베드로전서 3:17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였다.

고난 중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또 하나의 태도는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부탁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도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눅 23:46).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의인들은 고난이 많다(시 34:19). 자신의 죄성과 연약성을 깨끗게 하는 고난도 있다. 성도는 믿음과 순종으로 살 때도 육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 사도행전 14:22,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 속에 남아 있는 찌꺼기 같은 죄악된 성질들과 죄악된 습관들과 연약성과 게으름을 제거하여 좋은 인격을 만드는 단련 과정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의롭고 선하게 살면서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했다(골 1:24).

셋째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우선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끝까지 선하게 살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 성도의 고난은 신앙 인격의 단련을 받는 유익이 있다. 마태복음 5:11-12,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디모데후서 1:8, 12,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5장: 장로들에게 주는 교훈

1-6절, 장로들과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장로들’은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 감독자로 선택되어 세움 받은 자들을 가리킨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증거한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본 증인들이었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 증인들이기도 했다. 사도행전 1:22,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2:32,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3:15,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5:32,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그들은 또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다.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2-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아냥카스토스 ἀναγκαστῶς)[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전통사본에 없음)¹⁸⁾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利)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프로뮈모스 προθύμως)[준비된 마음으로, 열심으로] 하며,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문의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한다. 신약성경에서 장로는, 장로교 헌법에 표현한 대로, 설교와 치리의 일을 맡은 목사[강도장로]와 치리의 일만을 맡은 장로[치리장로]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

18) Byz B 등에 없음.

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고 말했다(딤후 5:17).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21:15, “내 어린양을 먹이라.” 21:16-17,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장로의 직무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이다. 양무리를 치는 일 즉 목양(牧羊) 혹은 목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일이다. 그것은 담임목사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고 장로들에게도 맡겨진 일이다. 그들은 다 목양의 직무를 맡았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담임목사와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그 직무를 다해야 한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다음 세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첫째로, 그들은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 무슨 선한 일이라도 억지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한 일들 중에 가장 귀한 일인 이 목양의 일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목사들과 장로들은 이 직무를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수행해야 한다.

둘째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열심으로 해야 한다. 목사들과 장로들은 교회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이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 봉사는 항상 순수하고 깨끗해야 한다. 그러므로 목사들과 장로들은 가능하면 교회 재정에 직접 관계하지 말고 만일 재정에 관계할 때에는 돈 계산에 있어서 정확하고 깨끗해야 한다. 목양의 일은 순수한 동기와 준비된 마음과 열심이 필요하다.

셋째로,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교인들의 대표자가 되고 인도하는 자가 될 때 다른 이들에 대해 높은 마음을 가지고 권위 의식을 가지고 대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악이다. 주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

어야 하리라”고 교훈하셨다(마 20:25-27). 그러므로 장로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은 주 예수님이시다.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의 재림의 날에 그는 충성된 종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히 11:6). 주 예수께서 마지막 날 복음의 일꾼들과 교회 장로들에게 주실 영광은 시들지 않는 영광이다. 그러므로 현재 목사들과 장로들은 주께서 주신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말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하고 또 우리는 부족투성이이지만 감히 그의 상 주심을 기대하며 충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충성해야 하는 것이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서로에게 복종하고(전통사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엡콤보사스데 ἐγκομβώσασθε) [옷을 입으라](원문, KJV, NASB, NIV).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 대한 권면과 함께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도 하였다.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은 일반 교인들에게도 적절한 교훈이다. 사도 베드로는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였다.

첫째로,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할 교훈이다. 히브리서 13: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특히 젊은이들은 대체로 아직 인생의 고난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하기 쉽다. 고난의 환경은 대체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지혜를 얻어야 한다.

둘째로, 젊은이들은 서로에게 순복해야 한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5:21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교훈하였다. 또 빌립보서 2:3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교훈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교회의 구성원이 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며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일치단합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셋째로, 젊은이들은 겸손으로 옷 입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사람은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존귀케 된다. 잠언 16: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12,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는 자이다. 젊은이들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장로들에게 순복할 수 있고 또 서로에게도 순복할 수 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사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시다. 그가 세우시면 세워질 것이고 그가 파하시면 파해질 것이다. 그가 높이면 높아질 것이고 그가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신명기 32:39,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한나는 이 믿음을 가졌다. 사무엘상 2:6-7, “여호와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

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들을 결코 쓰지 않으실 것이다.

본문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관해 교훈한다. 첫째로, 목사들과 장로들은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의무감 때문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준비된 마음과 열심으로 하고,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 목자이시다. 그는 자원함으로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우리 모든 목사들과 장로들의 본이 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이 교훈을 명심하고 그 교훈대로 힘써 실천하면 좋은 상을 받을 것이다. 좋은 목사들과 장로들을 둔 교회들과 양들은 참으로 복되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교인들은 좋은 양이 되어야 한다. 좋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자이다. 요한복음 10: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려면 양들은 겸손하게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며 특히 젊은이들이 그러해야 한다. 히브리서 13: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셋째로, 우리는 겸손으로 옷을 입고 서로에게도 복종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교인들이 힘써야 할 의무이다. 모든 교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복종해야 한다. 교만은 불신앙과 불순종과 거역을 만들고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온유와 겸손은 믿음과 순종을 가져오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 양들은 목자의 바른 교훈에 즐거이 순종해야 하고 서로에게도 복종해야 한다.

7-14절, 하나님만 의지하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돌보심]이니라.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염려거리가 항상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의 주관자이시며 특히 자기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며 날마다 돌보시는 하나님 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다 맡겨야 한다. 시편 55:22,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불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8-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니라.

마귀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이다. 그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빼앗으려 한다. 그는 우리가 이단이나 불신앙에 떨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서로 미워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그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고 멸망시키려 한다. 그는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가난으로, 또 다른 때는 가정적, 사회적 환난으로 성도들을 시험한다. 그는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과 고난으로 성도들을 시험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거나 욕심을 품거나 세상이나 돈을 사랑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도리어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주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기록된 성경말씀으로 물리치셨다(마 4:4, 7, 10).

[10-11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¹⁹⁾ 안에서 너희를 부

19) Byz p⁷² A vg syr^(p) cop^{sa-ms} bo arm 등에 있음.

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권세와 영광]²⁰⁾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들은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은혜가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부르셨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런 천국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기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비교해 볼 때,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잠깐 당하는 고난’에 불과하다. 그것은 100년의 일생 중에서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천국과 영생은 영원하고 영광스럽다. 그러므로 바울도 고린도후서 4:17-18에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남김 없이, 실패 없이 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우리의 구원이 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성령을 보내어 일하게 하셨다.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실 것이 분명하다. 과연 그러하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든든한 보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치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

20) Byz **κ** vg^{cl} cop^{sa} bo arm 등이 그러함.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이것이 너희가 그 안에 굳게 선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라].²¹⁾

실루아노는 바울의 협력전도자이었던 실라를 가리키는 것 같다(행 15:22; 고후 1:19; 살전 1:1; 살후 1:1). 실루아노는 베드로전서가 보내졌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의 성도들에게(벧전 1:1) 신실한 형제로 인정받고 있었고 베드로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또 그는 지금 베드로를 위해 이 서신을 대필(代筆)하고 있다. 실루아노가 바울의 협력자 실라라면, 그는 바울의 협력자이었고 또한 베드로의 협력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잘 증거한 셈이 되었다고 보인다.

베드로는 또 자신이 증거하고 권면한 내용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구절이 헬라어 전통 사본에는 ‘너희가 그 안에 굳게 선’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수식하고 있다. 즉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확신 가운데서도 그는 또 그 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아는 하나님의 말씀들과 주의 교훈들을 또 듣고 또 음미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

[13-14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예수]²²⁾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²³⁾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문자 그대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

21) Byz vg^{cl} 등이 그러함.

22) Byz ✠ vg^{cl} cop^{bo-mss} arm 등에 있음.

23) Byz ✠ vg syr^p cop^{bo-mss} arm 등에 있음.

는 것 같다. 복음이 널리 바벨론 지역에까지 퍼져 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또 마가에 대한 언급도 앞절에 실로아노에 대한 언급과 같이 초대교회의 같은 신앙과 같은 사랑의 교제를 나타낸다.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협력자이었고(행 12:25; 딤후 4:11) 사도 베드로에게도 그러하였다. 본절에서 베드로는 그를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기독교는 일치된 진리와 일치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진리와 신앙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이 진리와 신앙 안에서 참된 기독교를 확증하고 혹은 회복시키고 그것을 널리 전파하고 후대에 전수시키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을 주관하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그에게, 오직 그에게만 맡겨야 하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염려하기보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바를 그에게 아뢰어야 한다(빌 4:6).

둘째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듯이, 마귀도 실재한다. 마귀는 하나님과 온 교회와 교인들의 대적자이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교인들 중에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그 시험들과 장난들을 물리쳐야 한다.

셋째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는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작정하셨다. 그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이 세상의 복잡한 현실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터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베드로후서

서론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이다.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 하노니.” 3:1,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유다서 17-18절은 본 서신을 인용한 가장 오래된 증거이다. 베드로전서와의 문체의 차이는 그가 베드로전서에서 실루아노를 대서자로 사용한 것과 달리 본서에서 그 자신이 썼거나 다른 대서자를 사용한 것에 기인할 것이다. 베드로후서가 사도 베드로가 쓰지 않은 가짜 서신(僞書)일 수 없음에 대하여, 룬비(Lumby)는 말하기를,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 위조자가 고의적으로 그런 사도의 이름을 가지며 또 자기가 주장할 수도 없는 체험을 내세운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하였다.²⁴⁾

본서의 **저작 연대**는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후 즉 주후 66년 내지 67년경일 것이다. 베드로후서의 **특징적 주제**는 이단에 대한 경고이다. 본서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을 조심할 것을 경고한다. 베드로후서는 장차 나타날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말하는데 비해, 유다서는 당시에 나타나 활동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말한다.

베드로후서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신앙의 성숙

2장, 거짓 교사들

3장, 주의 날

24) *Expositor's Bible*, VI, 675; 다이슨, 신약개론, 422쪽에서 재인용함.

1장: 신앙의 성숙

1-4절, 구원의 내용과 목적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불렀다.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절대 복종하는 자임을 고백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종이다. ‘사도’라는 말은 예수께서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자를 가리킨다.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돌아보는 것이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어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본다(NASB). 예수님의 신성(神性)은 그에게 돌려지는 신적 명칭들과 속성들, 그가 행하신 신적 사역들, 그가 받으시는 신적 영광 등에서 증거된다. 예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요 1:1; 20:28), ‘크신 하나님’(딤후 2:13), ‘참 하나님’(요일 5:20)으로 불리셨다. 그는 신성(神性)을 가진 구주이시다.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代贖)의 의(義)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 로마서 10: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또 그는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전 1:30). ‘의를 힘입어’라는 말은 ‘의로 말미암아’라는 뜻이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義) 때문에 시작되었고 또 견고케 된다(롬 3:24;

고전 6:11).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의를 믿는 것이다. 여기에 구원과 영생이 있다.

베드로는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였다. 성도들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세상의 금은 보화로는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 없으나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막 16:16; 요 3:16).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천국을 기입으로 받을 매우 값진 것이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은 참 믿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배로움을 증거한다. 성도의 보배로운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공통적인 믿음이다. 디도서 1:4, “같은[공통적] 믿음(common faith)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한다. 그는 지식을 강조한다(벧후 1:6; 3:16).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은혜이며 구원이다. 예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다(요 17:3).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었고 마음의 참 평안을 얻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이나 물질적 여유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린다(잠 3:7-10; 마 6:33).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지식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도 더욱 많아질 것이다.

[3절] 그의 신기한(데이오스 θεϊος)[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의 일이다.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 예수께서는 그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경건함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과 그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셨다. 그의 구원의 사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덕으로써’라는 말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곧 그의 긍휼과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말한다. 우리는 이런 구주 하나님을 앎으로써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이로써’라는 말은 앞절에 말한 ‘영광과 덕으로써’라는 말을 가리킨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 즉 영생과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런 구원을 약속하셨다. 디도서 1:1-2,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신(神)의 성품’이라는 원어(데이아 푸시스 $\theta\epsilon\acute{\iota}\alpha\ \phi\acute{\upsilon}\sigma\iota\varsigma$)는 ‘신적인 성품’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그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은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죄책(罪責) 즉 죄인이라는 신분과 법적 책임을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전달된 죄성(罪性)을 극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죄책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즉시 회복되지만, 죄성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비록 매우 더디지만 점진적으로 극복된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창조되었으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나 구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義)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은혜와 평안을 더 많이 누리기를 기도하자. 성도의 성화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동반하며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더 풍성할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그것은 영광스런 몸의 부활과 영광스런 천국에서의 영원하고 복된 삶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 세상의 금은 보화와 비교할 수 없고 그런 것들로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보배이다.

넷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정욕을 인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함을 가리킨다.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5-11절, 더욱 힘쓰라

[5-7절] 이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더욱 힘써’라는 원어는 ‘모든 부지런함과 열심을 보여’라는 뜻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다음 일곱 가지를 더하는 일에 모든 부지런함과 열심을 보여야 한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1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더욱 힘쓰라고 교훈한 그 일곱 가지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는 덕이다. 덕은 선한 성품을 가리킨다. 믿음에는 선한 성품이 필요하다. 믿음이 선한 성품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든지 아니면 심히 부족하고 결함 있는 믿음일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선한 성품, 즉 덕스러운 성품을 갖추도록 힘써야 한다.

둘째는 지식이다. 우리의 믿음은 덕뿐 아니라, 지식도 필요하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자는 성경책을 시시때때로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기를 힘써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풍성해져야 한다.

셋째는 절제이다. 절제는 지식에 있어서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지극히 조금 알고 있을 뿐이다. 또 그 지식은 전적으로 성경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밝히 계시된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주시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상상하거나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4:6,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또 절제는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 결혼의 즐거움 등 삶의 즐거움을 주셨다. 성경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며(전 2:24; 3:13; 5:18; 8:15) 또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한다(전 9:9). 그러나 우리는 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육신적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절제가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9:25,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넷째는 인내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한다. 우리는 말세에 대 환난의 시대에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한다(계 13:10).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성경은 말한다(고전 13:4, 7).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릴 때에도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다섯째는 경건이다. 경건은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알고 항상 그를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이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그것은 성경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난다. 모든 신자는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여섯째는 형제 우애 혹은 친절이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8에서 우리가 서로 같은 생각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상대에 대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19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고 가르쳤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이 좋게 지내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하신다.

일곱째는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말(아가페 ἀγάπη)은 ‘형제 우애’라는 말(필라델피아 φιλαδελφία)보다 더 강한 뜻을 가진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 즉 ‘무조건적, 희생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용서를 비는 형제의 죄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명하셨다(마 5:44; 18:22).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롬 13:10).

[8-9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遠視)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케 하심을 잊었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위와 같은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에 있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겠지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내세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고 하나님께서 그의 옛 죄들을 깨끗케 해주셨음을 잊어버린 자와 같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아니할 것임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다시 강조한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얻은 증거는 우리의 참된 믿음과 회개의 열매이다. 우리는 믿음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굳게 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순종은 참된 믿음의 증표이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순종의 행위를 통해 자라고 강해진다. 성도의 승리의 비결은 계속 순종하기를 힘쓰는 데 있다.

[11절] [이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실 것임이니라.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 우리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즉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한 행실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선한 행실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그 확신을 간직할 것이다. 성도의 구원은 순종 생활에서 더욱 확실해진다. 성도가 범죄하면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며(시 51:12) 구원의 확신을 주실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 믿는 자는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덕목을 갖추도록 힘써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 선한 행위가 없는 자는 소경과 같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셨음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 선한 행위는 우리의 구원을 더욱 확실하게 한다. 주께서는 행함이 없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다(마 7:24-27).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심을 안다고 말했다(살전 1:2-4).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선한 행위로 입증해야 한다.

셋째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의 선한 행실들을 가진 성도들은 비록 그들 속에 죄성이 남아 있고 마귀의 시험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교훈대로 순종하는 자는 승리할 것이다.

12-21절,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두 가지 증거

[12-15] 이렇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는 서신을 받는 자들이 이미 복음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위에 섰다고 말한다. 처음으로 믿어 보려고 하는 자들 외에는 많은 신자들이 그러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복음 진리를 알고 있어도 그것들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 이 서신을 쓴다고 말한다. 특히 그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요 21:18-19) 자신이 장막을 벗어날 시간 곧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임박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성도들을 교훈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연적 내용이다. 그는 자신의 죽은 후에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때 이 진리가 생각나게(3번) 하려고 죽기 전에 힘써 교훈했던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 여기에 좋은 책들이나 설교 녹화물들이 필요한 이유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좋은 책들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교훈을 얻고 은혜와 유익을 얻어야 할 것이다.

[16-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사도 베드로는 특히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의 신적 능력과 강림하심 즉 그의 성육신(成肉身)에 대해 말한다. 그는 예수께서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17:5) 사람으로 내려오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소유한 분이심을 증거한다(요 1:14).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내용이다.

베드로는 이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에 관한 진리가 ‘공교히 만든 이야기’ 즉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들이 그의 크신 영광을 친히 본 자라고 증거했다. 그것은 마태복음 17장이나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된 대로(막 9장; 눅 9장) 그와 다른 두 제자들이 주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주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음성으로 그에 대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하신 내용이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음성으로 그를 증거하신 것이었다. 이것은 확실히 예수님에 대한 한 중요한 증거이었다. 이때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 영광에 대한 목격자이었던 사도 베드로의 증언이다.

[19-21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注意)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經)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전통본문)²⁵]말한 것임이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적 영광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를 말한다. 그것은 구약성경의 증거를 가리킨다. 그것은 그가 친히 보았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표현한다. 성경은 사람의 그 어떤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의 책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어두

25) Byz & A vg cop^{sa-mss} 등이 그러함.

운 곳을 비취는 등불과 같다. 어두운 밤에 불빛이 없다면 길 가는 자나 길을 찾는 자는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할 것인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에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죄와 불행과 죽음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바른 깨달음이 생기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특히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의 복음 진리를 바로 깨달을 때까지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해야 할 것이다. 누가복음 24:25-27,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한복음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詳考)[자세히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성경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책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해석해야 할 책이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자가 알아야 할 매우 기본적인 일이다. 성경이 중요한 만큼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경 해석의 건전한 방법은 첫째,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둘째,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해석하고 셋째,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다. 물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깨닫게

하시는데 은혜를 구하면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곧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고 기록한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딤후 3:16).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교훈을 항상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의 책들로 남아 있다. 그것이 신약성경이다. 신약성경은 사도들의 교훈이다. 사도들은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리는 그들의 책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책들을 남겨두신 것은 우리로 그들의 교훈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심이다.

둘째로, 우리는 특히 사도들의 증언인 신약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믿고 확신하자. 그들의 증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친히 본 자들이었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친히 보았고 또 그가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 음성으로 그에 대해 증거하신 것을 들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과 영광에 대한 목격자들이며 증인들이었다.

셋째로, 우리는 그들의 증언들보다 더 확실한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믿고 확신하자. 성경은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였고 그의 보내시는 신적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였다. 구약성경은 모세가 그것의 처음 다섯 권을 쓴 이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책으로 인정되었다. 구약성경의 권위는 확고하였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을 믿는 자들은 그 성경이 증거하는 신적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깨달을 수 있다. 메시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다(사 9:6).

2장: 거짓 교사들

1-9절, 거짓 교사들의 교훈과 결말

[1-3절] 그러나 민간에[사람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 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좃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훼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利)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구약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종종 나타났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代言)하는 자이지만,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이다. 사탄은 모든 거짓말들의 근원이다(요 8:44). 이와 같이, 신약 교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의 영광에 대한 말씀과 복음 진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는 말한다.

참과 거짓, 진리와 이단의 구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이사야 8:2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좃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 속에 빛이 없음이니라].” 여기의 빛은 지식을 가리킨다고 본다.

신약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었고 이 예언은 역사상 성취되었다. 주께서 그의 재림 직전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마 24:24).

거짓 교사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단 사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다르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구원 대신 멸망

을 준다. 왜냐하면 이단의 본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곳에는 멸망만 있다. 요한복음 3: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5: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그의 속죄사역을 부정한다.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1-3,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고백]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고백]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바울은 이단들이 결국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며(고후 11:3-4), 실상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마귀의 종들이라고 말했다(고후 11:13-15).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음란함이다. 본장의 뒷부분에도 이런 특징이 계속 언급되어 있다.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14절, “음심(淫心)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18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이단들의 이런 부도덕함으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음란함은 인간의 양심에도 거스르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한다는 자들이 거룩과 의(義)를 저버리고 음란함에 빠진다면 구원의 진리는 여지없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이단들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운동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다.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탐심이다.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대체로 이 세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특히 돈과 물질적 부요를 사랑할 것이다. 이단들은 세상의 물질적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다. 또 그들은 물질적 이익을 위해 말을 지어내며 거짓말도 한다. 그들은 진리의 사람들이 아니다.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이 받을 심판과 멸망은 옛날부터 지체하지 않고 잠자지 않는다.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의 결말은 멸망이며 그들의 멸망은 임박하다. 마태복음 25:41,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요한계시록 19:20,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어두움의 사슬에 묶어]²⁶⁾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신약교회에 나타날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들에서도 증거된다.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신 사실이다. 4-5절에 ‘용서하다’는 원어(페이도마이 φείδομαι)는 ‘아끼다, 용서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거나 용서하지 않으시고 어두움의 사슬로 묶어 지옥에 던져 넣으셨다. 범죄한 천사들 중 일부는 지금도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어두운 지옥에 갇히

26) Byz p⁷² vg cop^{bo} arm 등이 그러함.

어 있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도 아끼거나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실 것이다.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두 번째 증거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의 사실이다.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자(디카이오쉬네스 케뤼카 δικαιοσύνης κήρυκα)이었다. 음란하고 강포한 그 시대에 노아는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의 거룩을 지킨 자이었음에 틀림없었고 또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하게 순종한 자이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의(義)를 말과 행실로 증거한 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여덟 식구 외에 불경건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도 멸망시키실 것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한 성도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뒤집어엮어 정죄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세 번째 증거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유황불비를 내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 성들을 다 엮어 멸하셨다(창 19:24-25). 이 사건은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이 된다.

[7-9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의 성 도덕은 극도로 문란해져 공공연히 동성애가 행해졌다. 의로운 롯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였다. 이런 악은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있다. 현대 사회는 음란한 사회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마지막 심판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음란할지라도 노아처럼, 롯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의 영혼들은 지옥에 던지우고 수감되어 마지막 심판 날을 기다리게 될 것이며 거짓 교사들의 결말도 그러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을 분별해야 한다.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들여오는 자들이다. 우리는 오직 신구약성경으로 그들을 분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개요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내용이 개혁신학이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의 복음이라고 본다. 우리는 새로운 사상을 늘 조심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의 특징인 음란과 탐심을 경계해야 한다.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좃으리니.”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利)를 삼으니.” 세상이 성적으로 문란할지라도 우리는 음란을 경계하고 거룩하며 절제해야 하고, 이 세상이 물질만능주의를 따를지라도 우리는 탐심을 경계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이 받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특히 지옥 형벌을 두려워해야 한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유황불 심판은 역사적 사건들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자이심을 증거한다. 심판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세상은 결국 불경건과 음란과 방탕으로 멸망할 것이다. 지옥은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형벌의 장소이다. 그러나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은 멸망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10-22절,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

[10-13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톨메테스 *τολμητής*)[건방지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훼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거슬러] 훼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훼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불의의 보응을 받으며](전통본문)²⁷⁾ 낮에 연락(宴樂)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宴會)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宴樂)하며.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좀더 말한다. 첫 번째는 음란이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했다. 음란이 더러운 까닭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부관계를 벗어나 몸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이다. 음란의 죄는 자기 몸을 더럽히고 결국 가정을 불행케 만든다.

두 번째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합법적 권위를 가진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그들이 목사와 장로들이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멸시했고 그들을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물론 교인들이 목사들과 장로들을 전혀 비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목사들과 장로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과 실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들을 비평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 아니, 그들을 자주 비평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평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며 그의 사랑하시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27) Byz A C vg cop^{sa} bo 등이 그러함.

종들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교훈을 받고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는 것은 교회에 덕과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비난은 교회를 건설하는 대신 그것을 파괴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사 와 장로들에 대한 비난은 매우, 매우 조심해야 한다.

저 거짓 교사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난하는 송사를 하지 않았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이만큼 조심스런 일이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난하였다. 그들의 비난은 이치에 맞는 정당한 비평이 아니었다.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짐승과 같으며 멸망 중에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보응을 받을 자들이라고 다시 언급된다. 거짓 교사들의 행위는 또 육체적 쾌락을 구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낮에 육신적 쾌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먹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자들이야 말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점과 흠이다. 그들은 교사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마귀의 종들이며 세상적인 사람들이었다.

[14-16절] 음심(淫心)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저버리고 곁길로 개 브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좃는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음란함을 다시 말한다.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 즉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유혹했다. 음란한 세상 속에서 또 거짓 교사들의 음란한 유혹에 대항하여,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

며 또 성경 교훈대로(고전 7:1-5)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은 물질적 탐욕이었다.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들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곁길로 간 자들이었으며 마치 옛날 불의한 선물을 사랑하여 가다가 말 못하는 나귀가 하나님의 시킴을 받아 말로 책망하였던 선지자 발람의 길을 좇는 자들이었다. 사도 베드로는 물질적 탐심과 세상적 명예심을 따라 간 발람의 행위를 ‘미친 것’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그는 저 거짓 교사들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함으로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증거하였다.

[17-19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영원히]²⁸⁾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참으로]²⁹⁾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저희가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저희 자신이 부패의 종들이니](원문, KJV, NASB)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샘’과 같아서 그 속에 생명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없다. 그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불과하다.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두움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리킨다고 본다. 거짓 교사들의 음란함의 특징이 또 언급된다. 그들은 허영의 부풀린 말을 하면서 미혹한 데 행하는 자들에게서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 자신이 부패한 종들이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사람이 반복해서 범죄하면 죄의 종이 되고 그러면 결국 멸망의 종이 될 것이다.

[20-22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

28) Byz A C cop^{bo-ms} 등에 있음.

29) Byz **κ*** C arm 등이 그러함.

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사람이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더러움 가운데 떨어져 산다면, 그의 형편은 주를 알기 전보다 더 나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죄는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런 자들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잠 26:11) 돼지가 씻은 후에 더러운 구덩이에 누운 것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시는 죄악된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음란치 말아야 한다. 거짓 교사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였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 데살로니가전서 4:3-5,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둘째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고 건방지고 자신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고 비난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3: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셋째로,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 거짓 교사들은 탐욕을 가졌다.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자는 돈을 사랑한다. 디모데전서 6:9-10,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3장: 주의 날

1-13절, 주의 날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두 개의 편지를 쓴 목적은 성도들의 진실하고 순진한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었다.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은 구약성경을 가리키며,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신약성경을 가리킨다. 그가 쓰고 있는 서신도 그 중에 하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나타나 있다. 우리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항상 읽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그의 진리와 교훈이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위로를 받고 행함으로 그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에게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

[3-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말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불신앙적인 목사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재림의 진리를 비웃고 조롱할 것이다. 앞장에서 말한 대로, 정욕적 삶과 음란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다.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부정하며 말하기를 조상들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말한다. 예언된 종말적 대변혁의 징조들이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은 이러한 성경 예언의 성취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고 공공연히 부인한다. 라인홀드 니이버는 비극을 너머서라는 그의 책에서 “기독교의 교리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보다 더 속임과 착각으로 인도한 교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불신앙과 이단을 전파하는 사탄의 종들이다. 교회 역사상 끊임없이 일어났던 배교 운동들의 은밀한 사령탑, 즉 가장 우두머리에는 사탄이 있다. 우리는 이런 불신앙적 사상들을 분별하고 대항해야 한다.

[5-7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그의]³⁰⁾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자들을 두 가지 점에서 반박한다. 첫째로, 그는 하늘과 땅이 옛적부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음을 상기시킨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그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이라는 말은 ‘땅이 물에서부터 또 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으로 창세기 1:9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을 가리킨다고 본다.

둘째로, 사도 베드로는 옛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음을 상기시킨다. 이것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가리킨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사건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땅에 강포가 가득 함으로 40일 동안 홍수를 일으켜 멸할 것을 선언하셨다(창 6:13, 17).

30) Byz & C syr 등이 그러함.

그는 그의 말씀대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벌하셨다.

사도 베드로는 현재의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밝히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는다면, 미래의 마지막 불 심판의 경고를 믿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저 불신앙적 교사들은 이 모든 사실을 고의로 잊으려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경고를 의심치 말아야 한다. 우리는 특히 신약성경에 밝히 증거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매튜 풀은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다. “사람은 시간에 종속되고 시간에 의해 측정되지만, 하나님께는 과거와 미래가 없고 모든 일들이 현재이며 시간의 길고 짧음도 없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아니 창세 이후의 수천년이 단 하루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재림의 지연됨을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표현도 우리에게 짧은 시간도 하나님께는 길게 느껴질 수 있음을 보인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우리들](전통사본)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재림이 더딘 것 같음은 실상 더딘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넓게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았거나 살고 있거나 장차 출생할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³¹⁾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스토이케이아 στοιχειά)[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 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드(카타카에세타이 κατακαήσεται)[불타버리리래(전통사본).³²⁾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더딘 것 같지만 밤에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42-43,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1-2,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주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일들은 무엇인가? 첫째로, 주의 재림의 날에는 현재의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버릴 것이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에는 인류가 이룩한 모든 문명도 포함될 것이 분명하다.

[11-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31) Byz C vg^{mss} 등에 있음.

32) Byz A 048 vg^{cl} cop^{bo} 등이 그러함.

베드로는 계속하여 주의 재림의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의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라고 증거한다. 주의 재림의 날은 한마디로 심판의 날이다. 죄와 저주로 더러워진 현재의 세상은 다 불타 버릴 것이다.

베드로는 이런 사실 앞에서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가라고 물으면서 중요한 교훈을 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원어(복수형)는 강조하는 뜻을 가진다고 본다. 성도들은 주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더욱 온전히,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만 소망하며 주야로 성경말씀을 묵상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義)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주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다른 하나의 일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요한복음 14:1-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1:1, 5,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천국은 의(義)의 거하는 세계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세상, 죄악된 일들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장차 오는 세상인 천국은 의인들만 거하는 세상, 죄가 없고 의(義)만 가득한 세상이다. 거기에는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다. 그곳은 죄의 더러움과 저주와 허무함이 없는 완전히 새로워진 세계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항상 성경책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교훈을 받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성경을 늘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로, 우리는 말세에 나타나는 불신앙적 이단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근본 진리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용납하고 있다. 또 많은 보수적 교회들과 목사들이 자유주의 교회들과 목사들과 거리낌 없이 교제하고 협력하고 있다. 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천주교회를 용납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배교와 타협을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불신앙적인 이단들을 분별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바라며 또 하나님의 마지막 불 심판을 믿고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주님 자신과 사도들에 의해 밝히 증거된 진리이며 소망이다. 주의 재림의 날은 더딘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그가 만세 전에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날은 마침내 밤에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마지막 불 심판도 성경의 근본 교리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현재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요,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죄악된 세상은 다 불타 버리고 새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며 죄인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교훈과 약속과 경고를 다 믿고 또 두려워해야 한다.

넷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힘써야 한다(11-12절). 우리는 장차 멸망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살지 말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천국에 속한 자들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늘 깨어 있는 자들처럼 살아야 한다.

14-18절, 온전함을 위해 힘쓰라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도 베드로는 본장에서 본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거듭 불렀다(1, 8, 14, 17절).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을 보인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또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사랑하며 그 입에서 나오는 바른 교훈을 성심으로 받고 믿고 순종해야 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앞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의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땅히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함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교훈한다. 그것은 우리가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가 없고 오직 의(義)만 가득한 천국에 속한 자답게 거룩하고 의롭고 흠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천국은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벧후 3:13)이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죄 없는 상태,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함, 즉 도덕적 완전의 상태는 하나님의 구원 목표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목표이었다. 에베소서 1:4-5,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도덕적 완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목표이었다. 에베소서 5:26-27,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덕적 완전은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이루어졌다. 고린도전서 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

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헤기아스메노이스 ἁγιασμένους, 완료분사)[거룩하여졌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6: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과거시제).” 히브리서 10:10,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헤기아스메노이 ἁγιασμένοι, 완료분사).” 히브리서 10:14,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완료시제).”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죄가 많고 마귀의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도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전한 거룩의 상태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도덕적 완전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한다. 완전 성화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이어야 한다. 물론,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23-24,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나 우리 자신도 완전 성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1, “더욱 많이 힘쓰라.” 베드로후서 1:5, 10, “더욱 힘써.” 3:14,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 . . 나타나기를 힘쓰라.”

[15-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왜곡시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직 회개치 않은 택한 자들

에게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9절). 주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바로 아직 회개치 않은 택자들의 구원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곧 오시는 것도 기다리는 바이지만, 그가 지체하시는 것도 회개할 영혼들을 위함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한다.

사도 베드로는 바울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일들 곧 주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과 천국에 관해 그의 서신들에서 썼음을 말한다. 특히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짐을 암시한다. ‘그 모든 편지에도’라는 표현은 바울의 서신들이 그 당시에 많이 알려졌고 수집되어 있었음을 나타내고, 또 ‘다른 성경과 같이’라는 표현은 그가 바울 서신들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했음을 보인다. 여기에 사도들의 글들의 권위가 있다. 사도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전달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씀 전파의 특별한 임무와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글들은 신적 권위의 책으로 간주되었다.

단지, 베드로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바울 서신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잘못 해석함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억지로 푼다’는 원어(스트레블로오 στρεβλόω)는 ‘왜곡시키다, 변개시키다’는 뜻이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 진리와 다른 것을 말하고 정로(正路)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은 멸망할 큰 죄가 된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취급해야 한다. 성경의 어려운 부분은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 뜻을 잘 파악하고, 모든 성경을 거기에 조화시켜 해석해야 한다.

[17-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

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이다. [아멘.]³³⁾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단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믿고 확신함에
서 이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서 자라가야 할 것을 권면하였다. 우리는 복음 진리를 확신하고 그
지식 안에서 점점 더 자라가야 한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
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
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
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
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하였다(엡 4:13-16).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주 앞에서 흠 없는 온전함
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온전함을 우리의 구원의
목표로 예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이루셨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나 이 법적
인 의와 거룩은 우리의 성실한 노력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나타
나야 한다. 완전 성화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이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택자들의 구원이 될 것을 알아
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고 택자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지체되는 것임을 알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신약성경의 권위를 알고 또 성경을 왜곡시키는 큰 죄
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귀히 여겨야 하고 그
것을 바르게 해석하여 바르고 온전한 지식과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33) Byz p⁷² ✠ A C vg cop^{sa} bo arm 등에 있음.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졸업 (B.A.).

총신대학 신학연구원[신학대학원] 졸업 (M.Div. equiv.).

미국, Faith Theological Seminary 졸업 (Th.M. in N.T.).

미국, Bob Jones University 대학원 졸업 (Ph.D. in Theology).

계약신학대학원 교수 역임, 합정동교회 담임목사.

[역서] J. 그레섬 메이천, 신약개론, 신앙이란 무엇인가? 등 다수.

[저서] 구약성경강해 1, 2, 신약성경강해, 조직신학, 기독교교리개요, 기독교 윤리, 현대교회문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에큐메니칼운동 비평, 현대교회문제자료집, 기독교신앙입문, 천주교회비평 등.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강해

2001년 10월 21일 1판

2019년 8월 16일 2판

2021년 10월 12일 2판-수정중

저 자 김 효 성

발 행 처 **옛신앙 출판사**
Old-time Faith Press
www.oldfaith.net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내
02-334-8291, 9874
oldfaith@oldfaith.net

등록번호: 제10-1225호

ISBN 978-89-98821-49-4 03230

옛신앙출판사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출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背敎)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출판사 서적 안내

1.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6판]. 204쪽. 4,000원.
2. 김효성,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2판]. 170쪽. 6,000원.
3. 김효성, **에큐메니칼운동 비평**. 158쪽. 6,000원.
4. 김효성, **복음주의 비평**. 193쪽. 6,000원.
5. 김효성, **천주교회 비평**. [2판]. 97쪽. 3,000원.
6. 김효성, **이단종파들**. [6판]. 70쪽. 700원.
7.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6판]. 44쪽. 2,000원.
8. 김효성, **조직신학**. [2판]. 627쪽. 6,000원.
9. 김효성, **기독교 교리개요**. [10판]. 96쪽. 2,500원.
10. 김효성, **기독교 윤리**. [6판]. 240쪽. 4,500원.
11. 김효성, **신약성경 전통본문 옹호**. 166쪽. 4,000원.
12. 김효성, **기독교 신앙입문**. [10판]. 34쪽. 600원.
13. 김효성,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판]. 108쪽. 3,000원.
14. 김효성, **창세기 강해**. [3판]. 359쪽. 6,000원.
15. 김효성, **출애굽기 강해**. [2판]. 204쪽. 4,000원.
16. 김효성, **레위기 강해**. [3판]. 164쪽. 4,000원.
17. 김효성, **민수기 강해**. [2판]. 182쪽. 4,000원.
18. 김효성, **신명기 강해**. [2판]. 184쪽. 4,000원.
19. 김효성, **여호수아 사사기 룧기 강해**. [3판]. 216쪽. 4,000원.
20. 김효성, **사무엘서 강해**. [2판]. 233쪽. 4,000원.
21. 김효성, **열왕기 강해**. [2판]. 217쪽. 4,000원.
22. 김효성, **역대기 강해**. [2판]. 256쪽. 5,000원.
23. 김효성,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강해**. [2판]. 129쪽. 3,000원.
24. 김효성, **욥기 강해**. [2판]. 195쪽. 4,000원.
25. 김효성, **시편 강해**. [2판]. 704쪽. 10,000원.
26. 김효성, **잠언 강해**. [2판]. 624쪽. 8,000원.
27. 김효성, **전도서 강해**. [3판]. 84쪽. 3,000원.
28. 김효성, **아가서 강해**. [3판]. 88쪽. 3,000원.
29. 김효성, **이사야 강해**. [2판]. 398쪽. 6,000원.
30. 김효성, **예레미야 및 애가 강해**. [2판]. 359쪽. 6,000원.
31. 김효성, **에스겔 다니엘 강해**. [2판]. 293쪽. 6,000원.
32. 김효성, **소선지서 강해**. [2판]. 318쪽. 6,000원.
33. 김효성, **마태복음 강해**. [2판]. 340쪽. 6,000원.
34. 김효성, **마가복음 강해**. [3판]. 223쪽. 5,000원.
35. 김효성, **누가복음 강해**. [2판]. 373쪽. 6,000원.
36. 김효성, **요한복음 강해**. [3판]. 281쪽. 5,000원.
37. 김효성, **사도행전 강해**. [3판]. 236쪽. 4,000원.
38. 김효성, **로마서 강해**. [3판]. 145쪽. 4,000원.
39. 김효성, **고린도전서 강해**. [2판]. 122쪽. 3,000원.
40. 김효성, **고린도후서 강해**. [2판]. 100쪽. 3,000원.
41. 김효성,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강해**. [2판]. 169쪽. 4,000원.
42. 김효성, **빌립보서 골로새서 강해**. [2판]. 143쪽. 4,000원.
43. 김효성, **히브리서 강해**. [2판]. 109쪽. 3,000원.
44. 김효성,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강해**. [2판]. 145쪽. 4,000원.
45. 김효성, **요한 1,2,3서 유다서 강해**. [2판]. 104쪽. 3,000원.
46. 김효성, **요한계시록 강해**. [2판]. 173쪽. 4,000원.

☆ 주문: 전화 02-334-8291, 이메일 oldfaith@hjdk.net

☆ 계좌: 우리은행 1005-604-140217 합정동교회